

# 안동부 고지도의 유형별 수록지명 연구\*

배 미 애\*\*

## A Study on the Place-Names in Old Maps of Andong-Bu

Mi-Ae Bae\*\*

**요약** : 지명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고유한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 언어이다. 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통하여 과거나 현재의 지역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를 그린 지도의 지명을 추출하여 과거 안동부의 지역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안동문화권을 이해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안동부 고지도의 자연지명을 통하여 산천을 신앙시키는 선조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지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충실하여 방면 등 행정지명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봉수중심의 군사지명과 역원중심의 교통지명은 중앙과의 연계에서 안동부 사람들의 지역의 안위에 대한 인식과 영남내륙의 교통중심으로서 안동부의 위상을 설명해준다. 영남사람의 중심지역인 안동부는 삶의 공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으로서 유교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안동부 고지도에 수록된 문화지명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주요어** : 지명, 고지도, 안동부

**Abstract**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lace-names in old map of Andong-Bu mapped in Chosun Dynasty. A place-name is a linguistic expression whose function is to identify a topographic feature. The place-names in old map of Andong-Bu normally involve physical, administrative, military, economic, transport, and cultural features. The cultural place-names are more meaningful in Andong-Bu which was a center of confucianism in Chosun Dynasty. The generic place-names, including cultural place-names such as school, pavilion, temple, etc., served as indicators to identify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ndong in the past and present. A study on the place-names, using old maps, is regarded as advisable attempt in regional approach in geography.

**Key words** : Place-names, Old map, Andong-Bu

### 1. 서 론

지명은 특정 지역과 장소의 이름으로서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범위·유형의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이다(도수희, 2003). 특정 장소나 지역의 의미를 언어로서 표현한 지명은 사람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름대로의 의미를 담아 각 장소나 지역에 부여한 지혜로운 상징적 산물이며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발전·소멸되어 왔다. 따라서 지명은 어떤 한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역사성 및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명은 고착성과 보수성이 강하여 편의에 의해 쉽게 개명되지 않는다(강길부, 1987).

지명은 그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발전의 과정,

주민의 생활양식이나 고유한 정서와 가치관, 그리고 자연환경에의 적응방식 등은 다양한 지역성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며, 지명 속에는 이와 같은 지역의 고유성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의 지도상에 기재된 지명을 통하여 지역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지역의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이해는 지명에서부터 출발한다. 고지도에 표현되는 자연 및 인문환경적 요소는 지도제작 당시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표현과 더불어 고지도에 표기된 지명은 각 군현의 중요한 지리적 정보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은 과거 각 군현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S1027)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전임연구원(Researcher,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 (mabae@pusan.ac.kr)

본 연구는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를 그린 고지도를 대상으로 과거 지명이 지니는 장소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안동부의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군현별로 그려진 군현지도집 지도, 지지서의 부도, 대축척전국전도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안동부지도 중 연구에 적합한 다섯 종류의 지도를 선택하여 수록된 지명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통하여 지도별로 지명유형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고지도별 지명수록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명유형별로 항목을 설정하여 각 고지도별 항목의 구체적인 지명과 지리적 정보를 살펴보고 조선시대 편찬된 안동부의 읍지인 ‘영가지(永嘉誌)’<sup>1)</sup>에 수록된 지명과 비교함으로써 과거 안동부의 지명이 지니는 장소적 의미를 이해하고 조선시대 안동부의 지역적 고유성과 오늘날의 관점에서 안동이 지니는 역사지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지명분석에 사용된 고지도는 군현지도집 지도 중에서는 ‘해동지도(海東地圖)’, ‘비변사인영남지도(備邊司印嶺南地圖)’, ‘조선지도(朝鮮地圖)’ 중 안동부지도, 지지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 중 부도로서 안동부지도와 대축척전국지도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중 안동부 부분이다(그림 1).

안동부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영남사림의 본 고장으로 과거 안동의 지역성과 장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이는 오늘날의 안동문화권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 고지도별 특성과 지명의 유형별 빈도

### 1) 지명분석대상 고지도 및 지명수록 특성

현재 전하는 안동부 고지도는 대부분 군현지도의 제작이 보편화되었던 18세기 이후에 편찬된 지도이다. 안동부 고지도는 크게 군현지도집 지도 중 안동부지도와 읍지 등 지지의 부도로서 그린 안동부지도, 그리고 대축척 전국지도의 안동부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현지도란 조선시대 지방행정단위인 부(府)·목(牧)·군현(郡縣)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로서 현재

전하는 군현지도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군현지도집은 지도의 내용과 제작방법에 따라 일정한 축척을 사용하여 그린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과 축척을 균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각 군현을 그린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보경, 1995).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으로서 ‘비변사인영남지도’와 ‘조선지도’, 비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으로서 ‘해동지도’는 안동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지도들이다.

‘해동지도’는 1750년대 초에 제작된 비경위선표식의 회화식 군현지도집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관찬 지도집이다. 채색 지도로서 산줄기 및 하천의 흐름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방면, 역원, 읍치, 관아 등을 비롯한 지리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경위선표식 지도에는 도로를 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하여 ‘해동지도’는 세로(細路)까지도 자세히 표시하였다. 안동부는 369종의 지도를 모두 수록한 8첩의 지도첩 중에서 5첩에 해당된다. 방면지명과 산천을 비롯한 자연지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주기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을 지도에 지명과 함께 표기해 두었다. 성곽·봉수를 비롯한 군사지명, 역원·도진·고개 등의 교통지명, 교장·사찰·누정·제단으로 대표되는 문화지명 등을 총 망라하여 표기해 두었다. 따라서 다른 군현지도집 지도보다 비교적 많은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는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으로서 산과 하천의 표현이 매우 정밀하며 산맥보다는 독립적인 산세를 강조하였다. 영조 23년(1747)~26년(1750)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 군현을 한 장씩 그려 전체를 6책으로 묶었으며 안동부는 제2책에 포함되어 있다. 읍치, 방면, 하천, 산지, 봉수, 봉수로, 역원, 도로, 진, 참, 서원, 사찰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백에는 호구 수, 경지면적, 읍치 및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 지지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간지(子午卯酉)로서 표현한 방위와 군현경계명이 표기되어 있어 고을의 좌향을 비롯하여 타 군현과의 관계에서 해당 군현의 상대적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방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명이 지명표기의 중심을 이루며 이외에 산천을 중요시 한 고지도의 특성상 자연지

명을 많이 표기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의 지도로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도로, 봉수 등의 지명을 중요시 하였다.

‘조선지도’는 1767~1776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선표식 군현지도집이다. 방안은 축척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고을이 동일한 축척 아래 그려져 있어 전국지도로 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리정보의 정확성만을 목표로 한 지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군현지도에서 나타나는 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을의 읍치·감영·병영·수영·찰방역·진보·봉대·창고는 범례를 정하여 모든 군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sup>2)</sup> ‘조선지도’는 7첩(27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색필사본이다. 안동부지도는 제7책 경상도편에 수록되어 있다. 지명은 일반적으로 산지, 하천 등

자연지물을 나타내는 지명에 중점을 두고 표기되었다. 다른 군현지도집 지도들에 비하여 많은 지명을 수록하였으나 군사지명 및 문화지명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여지도서』는 영조년간(1757~1765)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지리서이다. 전 55책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으로서 안동부가 포함된 경상도는 26책~49책에 해당한다. 『여지도서』는 편성된 뒤 270년이 지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수로 다시 편찬된 읍지이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일부 방리, 제언, 도로, 전결, 부세, 군병의 항목이 추가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보강되었다. 일반적으로 읍지부도는 문화지명과 읍치관련 내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여지도서』의 경우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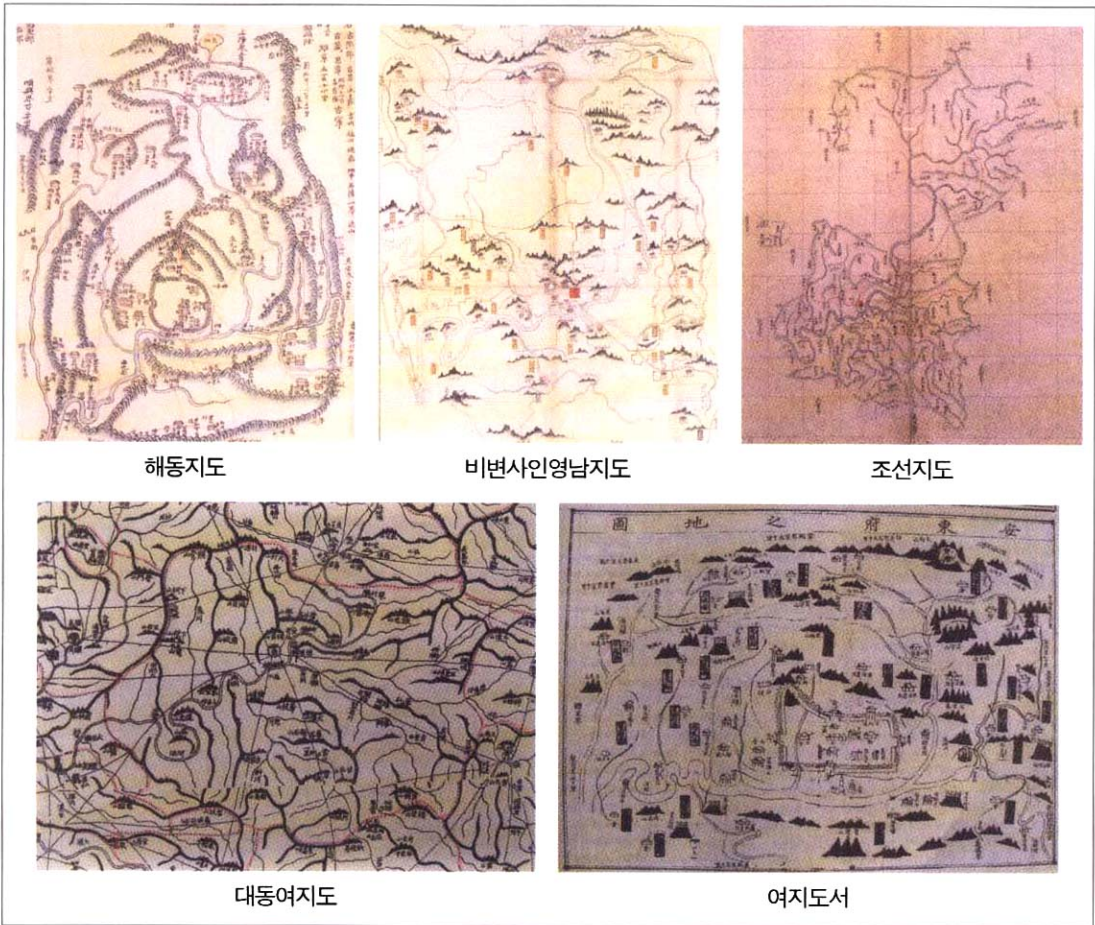


그림 1. 지명분석대상 안동부 고지도

산천을 나타낸 자연지명보다는 인문환경을 표현한 지명의 비중이 크다. 특히 문화지명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군현지도집 지도에 비하여 적은 지명 수를 표기해 두었다.

‘대동여지도’는 철종 12년(1861)에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전국지도이다. 산맥과 하천의 표현은 간결하며 대축척지도만이 가지는 속성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중요한 지명만을 표기하였으며 범례를 통하여 지지적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 산천·해도·영아·읍치·성지·진보·역참·창고·목장·봉수·능묘·방리·고현·고산성·도로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여 지명을 표기하였으며 특히 산천 및 군사, 그리고 교통지명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반면 군사 및 교통을 제외한 인문환경, 예를 들면 경제·문화관련 지명은 ‘대동여지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 2) 고지도 지명유형별 빈도

안동부 고지도에 표기된 지명의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지명을 자연·행정·군사·경제·교통·문화지명으로 대 분류한 후 다시 구체적인 항목으로 소 분류하였다. 자연지명에는 산지·평야·하천·호소 및 정천·해안·도서지명 등이 포함되며, 행정지명은 방면 및 속현·동리·특수취락·읍치·월경지 등, 군사지명은 성곽·봉대·군영·진영·돈대·관액·요충·전선·선소·망대 등, 경제지명은 창고·장시·제언·목장·어염·전답·봉산 등, 교통지명은 도로·역원·점막·도진·고개·교량·포구 등, 문화지명은 사묘·제단·태실·능묘·교장·누정·사찰·탑비·대묘 등으로 분류된다.

안동부의 경우 모든 지도유형을 망라한 총 지명 수는 542개로서 이 중 ‘해동지도’(26.8%)에 146개로서 가장 많은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조선지도’(23.5%), ‘비변사인영남지도’(19.6%), 『여지도서』(16.4%), ‘대동여지도’(13.6%) 순이다. 일반적으로 군현지도집 지도에 비해 지지서의 부도나 대축척전국전도의 지명이 적은 편이다. 지명유형별로는 전체 지명 총수의 31.6%로서 자연지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문화지명(17.0%), 교통지명(16.6%), 행정지명(15.5%), 군사지명(9.2%),

경제지명(9.1%)의 순이다. 산지와 하천 등 자연지물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고지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지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유교의 교화에 공헌한 많은 유학자들의 거주지로서 안동부의 고지도에 문화지명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명유형별 특색을 살펴보면 안동부의 자연지명은 산지, 평야, 하천, 호소 및 정천지명으로 요약된다. 이 중 산지지명은 다른 자연지명 항목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지명수가 표기되어 있다. 하천과 호소지명은 비교적 많이 표기되어 있는 편이나 평야지명은 아주 적은 지명만을 표기해 두었다. 영남 내륙에 위치한 안동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 해안에 관한 지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지도’에서 가장 많은 자연지명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중 산지지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지도서』와 ‘대동여지도’에 비하여 ‘해동지도’에 많은 산지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군현지도집 지도에는 산지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으나 안동부의 경우 군현지도집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매우 적은 산지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평야지명은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 각각 한번씩 표기되어 있다. 하천지명은 ‘조선지도’와 『여지도서』에 많이 수록하고 있는 데, 대체로 다른 군현을 나타낸 『여지도서』의 부도에는 자연지명의 비중이 적으나 안동부의 『여지도서』는 예외다. 호소지명은 각 지도별로 2~3개가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의 행정지명에서 방면과 속현지명은 동리와 읍치지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동리지명으로는 ‘하회마을’이 유일하며 읍치에 관한 표현도 매우 적다. ‘조선지도’에는 안동부의 행정명 및 읍치를 나타내는 지명이 생략되어 있다. 고려 태조와 후백제와의 전투가 이루어진 안동부지역에서 호족들의 도움으로 승리함으로써 많은 속현을 거느리게 된 안동부를 나타낸 지도에는 다른 군현들에 비하여 속현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 군현지도집 지도는 일반적으로 방면지명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편인데 안동부의 경우에도 ‘비변사인영남지도’를 비롯하여 ‘해동지도’, ‘조선지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방면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안동부를 그린 고지도 유형에서 군사지명은 성기, 관액, 봉수, 요충지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봉수

지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봉수는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범례로서 대부분의 군현에 봉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안동부 부분에는 이례적으로 봉수 표기가 없다. 성기, 관액, 요충지명은 일부지도에 국한되어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 고지도에 성곽관련 표기는 성터였던 성기와 과거 성이 있었던 곳에 대한 표기(古山城)로서 이는 지도 제작 당시 기존의 성곽 대부분이 훼손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해동지도'에는 성기 1곳이, '대동여지도'에는 과거 산성이 있었던 두 곳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로 들어오는 길목이나 고개에

설치되어 검문소의 역할을 한 관액과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요충지에 대한 표기는 '해동지도'에만 나타나 있다. '해동지도'에 군사지명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대동여지도'의 군사지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안동부 고지도에 표기된 경제지명은 창고지명과 제언지명으로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명을 수록한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10~13개의 창고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곡의 용이한 수집을 위하여 사창제를 실시하여 각 마을마다 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특히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조선지도'와 같은 군현지

표 1. 지명 유형별 빈도(안동부)

유형/항목	군현지지도집 지도			전국지도	읍지부도	합계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自然	山地	34	7	39	28	25	133
	平野	1		1			2
	河川	2	2	8	8		20
	湖沼·井泉	3	4	2	3	3	17
합계	40(7.4)	13(2.4)	50(9.2)	39(7.2)	28(5.4)	170(31.6)	
行政	坊面·屬縣	19	22	20	6	5	71
	洞里		1	1	1	1	4
	邑治	1	1		1	5	8
합계	20(3.7)	24(4.4)	21(3.9)	8(1.5)	11(2.0)	84(15.5)	
軍事	城基	1			3		4
	關陴	8					8
	烽燧	6	6	7		7	26
	要衝	12					12
합계	27(5.0)	6(1.1)	7(1.3)	3(0.5)	7(1.3)	50(9.2)	
經濟	倉庫	12	10	10	4	13	49
	堤堰					1	1
합계	12(2.2)	10(1.8)	10(1.8)	4(0.7)	14(2.4)	50(9.1)	
交通	고개	19	10	19	10		58
	渡津		2		1		3
	驛院	7	6	8	5	3	29
합계	26(4.8)	18(3.3)	27(5.0)	16(3.0)	3(0.5)	90(16.6)	
文化	教場	5	12	11		11	39
	樓亭(臺)	4	13	1	3	10	31
	寺刹	4	9			2	15
	祭壇					3	3
	祠廟	2	1				3
塔碑	1				1	2	
합계	16(2.8)	35(6.5)	12(2.2)	3(0.5)	27(5.0)	93(17.0)	
기타	5					6(1.1)	
총합계	146(26.8)	106(19.6)	127(23.5)	74(13.6)	89(16.4)	542(100.0)	

도집 지도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제언지면은 『여지도서』에만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의 교통지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고개지명이며 다음으로 역원지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도에서는 도진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도로, 교량, 포구와 같은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해동지도’에 교통지명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조선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대동여지도’ 순이다. 군현지도집 지도나 대축척전국전도에 비하여 지지서의 부도인 『여지도서』는 매우 적은 교통지명을 표기해 두었다. 역원지명은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나 도진지명은 ‘비변사인영남지도’, ‘대동여지도’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고개지명은 『여지도서』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 고지도에는 문화지명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항목이 모두 다루어진다. 향교 및 서원으로 대표되는 교장지명은 문화지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누정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 교장과 누정지명에 비하여 적은 지명수를 표기하였으나 사찰지명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외에 제단, 사묘, 탐비명을 일부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 문화지명이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고 다음으로 『여지도서』가 따른다. 대축척전국전도인 ‘대동여지도’에는 군현지도집 지도나 읍지부도에 비해 매우 적은 문화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누정지명 세 곳만 표기되어 있다. 누정지명은 모든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교장지명은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서 사찰명을 살펴볼 수 있고 제단과 탐비명은 『여지도서』에만 표기되어 있다. 사묘명은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에 각각 2곳과 1곳이 표기되어 있다.

### 3. 지명유형별 분석과 주요 지명의 의미- ‘永嘉誌’와의 비교

#### 1) 자연지명

고지도에서는 산과 하천이 기본적인 표현 요소가 된다. 산과 하천은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구분하는 단위가 되며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을 지

닌 장소이다. 동시에 신성한 장소이며 의례의 대상이 되고 풍수적인 사고에서 상징적인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이경미, 1998). 따라서 고지도에는 산과 하천 등 지형과 관련한 지명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안동부의 고지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자연지명이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다(표 2).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형승조’에 의하면 안동은 도(道)의 웅번(雄藩)으로서 “큰 강이 띠처럼 둘러 있다”.....“무협(水峽)이 왼쪽에 펼쳐져 있고, 성산(城山)이 오른쪽에 버티고 있으며, 물은 돌아서 호수를 만들고 있다.....” “물은 황지(黃池)로 빠져서 일만 구렁을 흡수하고, 산은 태백산(太白山)이 가장 뛰어나 못 봉우리를 통솔한다.....” 등으로 지세가 묘사되어 있다. 태백산맥의 지맥이 고을의 동서로 걸치면서 안동부는 동북쪽과 서북쪽 외곽이 산지로 둘러 싸여져 있고,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로, 그리고 서남쪽은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 (1) 산지 지명

안동부는 큰 산지는 없으나 태백산을 주맥으로 하여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중소규모의 산들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어 평지가 드문 지역이다. 『영가지』에 의하면 부의 북동쪽 1리쯤에 있는 영남산(嶺南山)은 안동부의 주산(主山)으로서 산허리에 성재정(聖齋井)이라는 고정(古井)이 있었다 한다. 부의 서북쪽에 있는 저수산(猪首山) 역시 안동부의 주산이다. 영남산과 저수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동지도’와 ‘대동여지도’에 각각 한번씩 표기되어 있다.

태백산에서 뻗어 내려 부의 서쪽 산지의 주맥을 형성하는 조골산(照骨山)은 ‘비변사인영남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는 ‘昭骨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부의 북쪽으로 천등산(天燈山)이 자리 잡고 있다. 천등산은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지도’에는 ‘天燈山’으로, ‘대동여지도’에는 ‘天灯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산천조’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견훤과 병산(瓶山)에서 싸워 견훤이 패주할 때에 시랑(侍郎) 김악(金瀝)을 포로로 잡았으며, 죽은 자가 8천 명을 넘었다 한다. 병산 지명은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만 표기되어 있

다. '갈라산(葛羅山)'으로도 불리는 문필산(文筆山)은 신라의 김생(金生)이 여기에서 글씨를 배웠으므로 산 이름을 문필산으로 지었다고 한다. '해동지도'에는 문필산 산능선을 중심으로 남쪽방향은 '문필산'으로, 북쪽 방향은 '갈라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여지도서』에는 갈라산으로, '대동여지도'에는 문필산으로 수록하였다.

부의 동쪽과 서쪽으로는 노산(廬山)과 하가산(下柯山)으로도 불리는 학가산(鶴駕山)이 마주하고 있다. 안동부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학가산에는 산봉을 둘러 성이 축조되어 있었다 한다. 학가산의 정상은 국망봉(國望峯)인데 『영가지』에 의하면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이 후에 적성봉(摘星峯)으로 고쳤다 한다. 학가산은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두 가닥 물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터를 잡아 살 곳이 된다고 하였다.<sup>3)</sup> 노산은 '해동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고 학가산은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 표기되어 있다.

청량산(淸涼山)은 재산현(才山縣)의 서쪽에 있으며 송대풍혈(松臺風穴)이라는 큰 동굴이 있다. 청량산의 치원봉(致遠峯)은 신라시대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이 여기에서 글을 읽었으므로 이름 지은 것이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산천조'에 적혀 있다. 청량산의 축성은 1595년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경일봉에 동문, 선학봉에 북문, 연화봉에 서문, 연대앞에 남문을 두고 금탑봉 절벽위에 도청 5칸을 두었다 한다(임재해·임세권, 1986). '해동지도', '조선지도', 『여지도서』에 지명이 적혀 있으나 '대동여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생략되어 있다.

하지산(下枝山)의 다른 이름은 풍악산(豊岳山)인데, 풍산현(豊山縣)의 진산이다. 풍악산에는 성을 축조한 흔적이 있는데 이 성은 신라시대 피난처 또는 현(縣)이 주(州)로 될 때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진다. '대동여지도'에만 유일하게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내성현(奈城縣)의 남쪽과 북쪽으로는 송관산(松官山)과 문수산(文殊山)이 마주하여 고을을 감싸고 있다. 송관산의 지명은 '조선지도'에 유일하며 문수산은 대축적전국전도인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성황산(城隍山)에는 성황단이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되며 토성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황산 지명은 안동부 고지도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성황단'이나 '성황사'라는 지명을 통하여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개목산(開日山)에도 축성한 흔적이 있다. '대동여지도'에 유일하게 개목산이 표기되어 있다. 부의 동북쪽에 있는 병산(甁山)과 하회마을이 있는 풍산현의 남쪽에 있는 병산은 발음이 동일하다. 두 병산 모두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만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고지도에 비해서 안동부의 읍지인 『영가지』에는 많은 산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안동부의 사방사악(四嶽)에 해당하는 동악·서악·남산·금학산을 비롯하여 안동부치를 중심으로 사방에 분포한 소규모 산지의 지명은 읍지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고지도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 동으로는 박산·인산·무협산, 남으로는 기령산, 서로는 용산 등이다. 임하현의 개산·아기산·수정산·비봉산·도마산, 일직현의 진룡산·신감산·대전산, 풍산현의 고산·현공산·조과산·직곡산·발산, 내성현의 호애산, 소천부곡의 죽미산·반이산 등 안동부의 속현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지에 대한 지명표기가 고지도에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태이동의 진봉산을 비롯하여 각 동리마다 산재해 있는 산지는 『영가지』에만 수록되어 있다. 고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영가지』 산지명은 다음과 같다.

---

태양산太陽山 부천산富泉山 동악東嶽 서악西嶽  
 남산南山 금학산琴鶴山 박산博山 인산仁山 무협산巫峽山 기령산嵒嶺山 용산龍山 봉지산峯芝山  
 상고산上孤山 하고산下孤山 상산上山 무은산茂隱山 오이산烏垵山 진봉산振鳳山 고유산高游山 망지산望芝山  
 오리산梧里山 오음산五音山 옥산玉山 개산介山 아기산阿岐山 수정산水精山 비봉산飛鳳山  
 도마산道馬山 진룡산震陵山 신감산神感山 대전산大田山 풍악산豊嶽山 고산孤山 정산井山 현공산懸空山  
 조과산助坡山 대봉산大鳳山 직곡산稷谷山 광석산廣石山 발산鉢山 호애산虎崖山 죽미산竹薇山 반이산潘伊山

---

## (2) 하천지명

안동부 고지도에서 하천지명은 '河', '江', '川', '灘', '溪', '潭', '淵'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안동부의 물줄기는 크게 강원도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洛東江)이 고을의 중심을 관통하여 남류하다가 영양



일월산(日月山)에서 흘러나온 반변천과 합류하여 지명은 '해동지도'가 유일하다. 물의 근원이 영양군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세를 나타낸다. 낙동강 에 있는 이유로 반변천 지명은 안동부지도에는 표

표 2. 안동부 고지도의 자연지명(산지·평야·하천·호소)

산지	원지산 遠志山 【海】 【備】 【朝】 【興】 【大】
	일월산 日月山 【海】 【備】 【朝】 【興】
	문수산 文殊山 【海】 【備】 【朝】 【興】
	태백산 太白山 【海】 【備】 【朝】 【興】
	외룡산 臥龍山 【海2】 【備】 【朝】 【大】
	화 산 花 山 【海】 【備】 【朝2】 【大】
	학가산 鶴駕山 【海】 【備】 【興】
	조골산 照骨山 【海】 【朝】 【興:昭骨山】 【大】
	천등산 天燈山 【海】 【朝:天燈山】 【大:天燈山】
	노 산 蘆 山 【海】 【朝】 【大】
	백병산 白屏山 【備】 【朝】 【興】
	청량산 淸涼山 【備】 【朝】 【興】
	황학산 黃鶴山 【朝】 【興】 【大】
	고방산 古方山 【海】 【朝:高方山】
	봉래산 蓬萊山 【海:蓬萊】 【朝】
	비파산 琵琶山 【海】 【朝】 * 개내산 介乃山
	갈라산 葛羅山 【海】 【興】
	건지산 乾芝山 【海】 【大:乾芝山】
	문필산 文筆山 【海】 【大】
	오로봉 五老峯 【朝】 【興】
	주마산 走馬山 【朝】 【興】
	하가산 下可山 【朝】 【大:下可山】
	오리기산 五里岐山 【朝】 【大】
	남성산 南城山 【朝】 【大】
	철둔산 鐵屯山 【朝】 【大】
	어름산 御廩山 【朝】 【大】
	병 산 屏 山 【朝】 【大】
	병 산 瓶 山 【朝】 【大】
	봉지산 峯之山 【興】 【大:峯枝山】
	신석산 中石山 【興】 【大:新石山】
	감곡산 甘谷山 【興】 【大】
	금탑봉 金塔峯 나치산 羅峙山 각화산 覺華山 내덕산 納德山 내관산 內關山 변학산 變鶴山 사니산 師尼山 상산 常山 앙서산 鶯栖山 연화산 蓮花山 영남산 映南山 운대산 雲臺山 청옥산 靑玉山 청원산 淸原山 축로봉 丑老峯 축룡봉 祝龍峯 파골산 破骨山 【海】
	노현산 老峴山 두음산 斗陰山 등운산 騰雲山 비사산 比叚山 석개산 石介山 송관산 松官山 수각산 水閣山 수다산 水多山 오적산 五赤山 용각산 龍角山 운방산 雲放山 장갈산 長葛山 통좌산 通左山 제비산 齊飛山 황창산 黃腸山 【朝】
	석곶산 石串山 석포산 石浦山 성조산 聖祖山 소백산 小白山 갈방산 葛方山 당북산 堂北山 풍악산 豊樂山 태조산 太祖山 현성산 峴城山 협약산 峽藥山 【興】
개목산 開日山 광연산 光淵山 검암산 儉岩山 남각산 南角山 박달산 林達山 약산 藥山 하지산 下枝山 운산 雲山 저수산 猪首山 【大】	
평야	반 야 盤 野 【海】
	미천평 彌川坪 【朝】



하천	낙연	落淵	【海】	【備】	【朝】	【興】	【大】
	사천	沙川	【海】	【朝】	【大】		
	선어연	仙魚淵	【備】	【興】	【大】		
	구담	九潭	【海】	【備】			
	천천	穿川	【備】	【朝】			
	화천	花川	【備】	【大】			
	요촌탄	蓼村灘	【朝】	【大】			
	금소천	琴召川	【朝】	【大】			
	광탄	廣灘	【朝】	【大】			
	낙동강	洛東江	【海】				
	망천	網川	【朝】				
	쌍계	雙溪	【朝】				
	마곡탄	馬谷灘	【朝】				
	어연	魚淵	【朝】				
	독천	秃川	【大】				
	임하	臨河	【大】				
물야탄	勿也灘	【大】					
호소	황지	黃池	【海】	【備】	【興】		

기되어 있지 않다. '조선지도'에 표기된 쌍계(雙溪)는 학가산 사이에서 나와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며, 그 물이 합수하여 화천(花川)이 되어 풍산현의 하회마을을 감싸고 돌아나가 고을 남쪽으로 흐른다. 물이 합수하는 지점에는 병벽(屏壁)이라는 석벽이 있으며 매우 가파르고 그 아래에는 병담(屏潭)이라는 못이 있다. 쌍계는 '조선지도'에 지명이 유일하며 화천은 '대동여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는 광탄(廣灘)과 물야탄(勿也灘) 역시 부의 동쪽을 가로 질러 흐르며, 물야탄은 예안현(禮安縣) 부진(浮津)의 하류에 해당하는 요촌탄(蓼村灘)의 하류이다. 요촌탄은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의 남쪽 물줄기인 독천(秃川)은 의성현(義城縣) 황산(黃山)에서 발원하여 견항진 하류로 흘러 들어간다. 금소천(琴召川)은 임하현의 서쪽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청송부 서천(西川)의 하류로 와부탄의 상류에 들어간다. 사천(斜川)은 일직현 앞을 흐른다.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서 사천, 금소천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영양 일월산에서 발원한 반변천이 안동부에서 동서로 가로질러 낙동강 물줄기와 만나는 첫 합수 지점 부근에는 강 속의 바위가 갈라져 폭포를 이

룬 낙연(落淵)이, 두 번째 합수 지점 부근에 선어연(仙魚淵)이라는 연못이 형성되어 낙동강 물줄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낙연은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며 선어연은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 '대동여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읍지와 고지도간 지명의 공유성에 있어서 산지명에 비하여 하천지명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부 지명을 제외하고 『영가지』와 고지도에 각각 독립적인 산지명을 수록하였다. 와부탄(瓦釜灘)은 부의 동쪽을 흐르며 진보현(眞寶縣) 신한천(神漢川), 청송부(淸松府) 남천(南川), 임하현(臨河縣) 금소천(琴召川)의 하류이며 견항진(犬項津) 남쪽에서 합류한다. 그러나 지도에는 그 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고지도에는 안동부 속현을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 생략되어 있다. 다추월천은 임하현 서쪽 5리 부근을 흐른다. 보현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굽어 흘러 금소천이 되고 다추월천을 거쳐 비리연(飛鯉淵) 하류로 흘러 들어간다. 이외에 임하현에는 망진천·지원천·도목천이 흐른다. 일직현에는 사교천·학천·구미천이, 풍산현에는 유천·창풍천·곡강이, 감천현에는 신천이, 내성현에는 환수정천, 개단부곡에는 춘양현북천, 소천부곡에는 현남천이 흐른다. 다음은 고지도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천지명으로서 『영가지』에 수록된 안동부 하천지명들이다.

다추월천多秋月川 망진천亡津川 지원천枝院川 도  
목천桃木川 사교천沙橋川 학천鶴川 구미천龜尾川  
유천柳川 창풍천昌豊川 곡강曲江 신천新川 환수정  
환수정環水亭川 춘양현북천春陽懸北川 현남천顯南川  
탑연塔淵 용혈연龍穴淵 종연鍾淵 와부탄瓦釜灘 추  
탄楸灘 승선용담勝仙龍潭 주계周溪 대계大溪 만운  
계晩雲溪

(3) 평야 및 호소지명

안동부에서 가장 넓은 평야는 풍산(豊山)들이지  
만 고지도에서 풍산평야와 관련한 지명을 살펴보  
기는 힘들다. 『조선지도』에 표기된 미천평(彌川平)  
은 안동부 일직면과 남후면 동부를 거쳐 낙동강으  
로 유입되는 하천인 미천(眉川) 유역 평야인 것으  
로 추측된다. 지도상의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  
진다. 안동부 경계 내에 입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지도에 중요하게 표  
현 및 표기한 것은 안동부의 주요 물줄기인 낙동  
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지도와 마찬가지로 『영가지』에도 평야와 관련  
된 지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고지도 상에 강의 흐  
름을 잘 나타내고 물의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 낙동강  
의 발원지인 황지를 크게 부각 시킨 반면 『영가지』  
에는 부 내에 국한하여 크고 작은 호소나 우물을 위  
주로 수록하였다. 부 동쪽 용정사의 대하(臺下)에 있  
는 용정은 낙동강과 맥이 통해 비가 오면 물이 불어  
났다 한다. 부 서쪽 대도솔의 동쪽에는 용마가 우물  
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는 마당정이 있다. 읍성 내에는  
애련당 부근에 파 놓은 객사연지와 상아에 있는 아내  
외지, 그리고 사창남지와 사창내지가 있다. 서악 아래  
전쟁터의 북쪽에는 원두택이 있으며 임하사 앞에는  
여택이 있다. 영자지(映子池)라고도 불리는 동여지는  
옛날에 풍수에 해롭다고 해서 판 연못이라 한다. 풍  
산현 서쪽 원당촌에는 원당연지가 있다. 다음은 『영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호소관련 지명들이다.

용정龍井 마당정馬堂井 소현정西峴井 거곡초정涸  
谷椒井 거물산초정巨物山椒井 금산초정金山椒井  
객사연지客舍蓮池 사창남지司倉南池 아내외지衙  
內外池 사창내지司倉內池 범림사지法林寺池 범룡  
사지法龍寺池 원두택圓頭澤 여택蠡澤 서영지西映  
池 동영지東映池 흥원사지興元寺池 비사원지飛沙  
院池 가야연지佳野蓮池 원당연지圓塘蓮池

2) 행정지명

안동은 고려 태조 13년에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고창군 병산에서 물리침으로서 이에 대한 전공의  
포상으로 '군(郡)'보다 상위관청인 '안동부(府)'를 설  
치하게 된데서 그 지명이 유래된다. '안동(安東)'은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고려의 '동쪽을 편하게 하였  
다'라는 뜻에서 유래한다(권두규, 1994). 대축척전  
국전도인 '대동여지도'에서만 부의 행정명인 '안동'  
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고 나머지 군현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표 3).

조선시대 안동대도호부는 녹전면, 도산면, 예안  
면을 제외한 지금의 안동시 전체와 예천군 감천면,  
봉화군 봉화읍 대부분, 법전면 일부, 춘양면 일부,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에 해당하는 큰 고을이었으  
며 읍치는 안동 시내 동부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속현조'에 의하면 동  
쪽으로 진보현까지 65리, 청송부까지 66리, 남쪽으  
로 의성현까지 44리, 서쪽으로 예천군까지 54리, 북  
쪽으로 영천군까지 42리, 예안현까지 32리이며, 서  
울과의 거리는 5백 14리이다.

(1) 방면·속현·동리지명

안동부의 방면은 읍내에 위치한 동부(東部)면과  
서부(西部)면을 비롯하여 동으로는 부동면(府東面)  
에서 분리된 동선(東先)·동후(東後), 남으로는 부  
남면(府南面)에서 분리된 남선(南先)·남후(南後),  
서로는 부서면(府西面)에서 분리된 서선(西先)·서  
후(西後), 북으로는 부북면(府北面)에서 분리된 북  
선(北先)·북후(北後) 등 읍치를 중심으로 방향과  
거리를 고려하여 읍치에 가까운 방면은 방위 뒤에  
선(先)을, 먼 방면은 후(後)를 첨가하여 지명을 나  
타냈다. 이와 같은 읍치 기준의 방면지명 외에 속  
현이었던 곳을 중심으로 방면을 나누었다. 옛 임하  
군인 임현내(臨縣內)를 기준으로 임동(臨東)·임서  
(臨西)·임남(臨南)·임북(臨北)으로, 옛 풍산현인  
풍현내(豊縣內)를 기준으로 풍남(豊南)·풍서(豊西)  
·풍북(豊北)으로 나누었다. 남쪽의 일직현은 일직  
(一直面), 서쪽의 감천현은 감천면(甘泉面)이 되었  
다. 길안부곡은 고려 충선왕 때 길안현으로 승격되  
었다가 숙종 때 길안면이 되었다.

안동대도호부는 930년 고려 태조와 후백제의 견

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이 전투에서 고려 태조는 김선평(金宣平)·권행(勸幸)·장길(張吉) 등 안동의 호족세력 도움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많은 속현을 두게 되었다. 이후 지방관이 파견된 속현은 독자적인 고을로 남게 되었지만, 조선 초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은 그대로 안동의 땅으로 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월경지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행정경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감천면, 내성면,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등은 모두 안동부의 월경지로서 원래는 대부분 '부곡'이나 '향'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 초에 양반 세력이 이주하면서 세거지로 삼은 지역으로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읍치로부터 분화되어 나간 양반 세력의 정착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속현조'에 의하면 안동대도호부의 속현은 모두 9개로서 부의 동쪽에 있는 임하현은 본래 고구려의 굴화군(屈火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이 곡성군(曲城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기에 임하현으로 개칭하였다. '臨河'는 '큰 물이 이르는 곳'을 뜻한다. 풍산현은 본래 신라의 하지현(下枝縣)이었는데 역시 신라 경덕왕이 영안(永安)으로 고쳐 예천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다시 하지현이 되었다가 풍산현으로 개칭하였다. 부의 남쪽에 있는 일직현은 본래 신라의 일직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일녕(一寧)으로 고쳐서 고창군의 영현으로 하였다가 고려 초기에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 감천현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위 임하현·풍산현·일직현과 함께 고려 현종 때 안동도호부로 예속되었다. 부 동쪽의 길안현은 길안부곡(吉安部曲)이었으나 고려 충혜왕 때에 현으로 승격하였다. 부 북쪽의 내성현은 퇴관부곡(退中部曲)이었으나 고려 충혜왕이 이 고을 사람인 내시 강금강(姜金剛)이 원나라에 있을 때 시위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내성현으로 개칭하여 승격시켜 현으로 하였다. 재산현은 본래 덕산부곡(德山部曲)이었으나 고려 충선왕이 경화옹주의 고향이라고 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승격시켜 현(縣)으로 하였다. 내성현 북쪽의 개단부곡(皆丹部曲)과 재산현의 소천부곡(小川部曲)도 안동대도호부의 속현에 속한다.

방면지명은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조선지도', 『여지도서』 등 모든 유형의 군현지도 및 읍

지부도에 표기되어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과거 속현이었던 길안면·풍현면·소천면·재산면·춘양면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였다. 『영가지』에는 속현지명은 모두 다루었으나 방면지명은 동부면과 서부면만 제시되어 있다. 『영가지』 보다는 고지도에 더 많은 방면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각 군현의 원활한 통치와 행정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방면이나 속현의 표기에 매우 신중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동리지명

동리지명으로는 유일하게 유성룡의 고향인 '하회(河回)'가 모든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안동부의 다른 마을보다 하회마을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회마을은 안동부에서 서쪽으로 50리 거리에 있으며 풍산현에 속해 있다. 동쪽으로는 주산인 화산(花山)이 평지에서 높다랗게 솟아 있고, 남쪽에는 마을의 안산에 해당하는 일월산 지맥의 원지산(遠志山)이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이 굽이쳐 마을을 안고 돌아 흘러 '하회'라고 불리어왔다. '해동지도'에는 '河回'으로 '대동여지도'에는 '河廻'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곡강(曲江), 하상(河上), 강촌(江村), 하촌(河村) 등으로도 불리어졌다. 이중환의 『택리지』 '북거총론'에는 가장 바람직한 택리(擇里) 조건으로 '계거(溪居)'를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하회마을은 가장 이상적인 계거지로 제시되고 있다.<sup>4)</sup>

안동부 고지도에서 동리지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영가지』에는 안동부의 모든 동리지명과 마을이름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동부면과 서부면에 속하는 동리지명을 모두 나열하였다. 그리고 읍치를 중심으로 사방의 마을을 먼저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안동부 속현에 속한 마을지명들을 수록하였다. 다음은 『영가지』에 나타난 안동부의 동리지명들이다(마을 지명은 <國譯永嘉誌>, 1991를 참고).

용흥리龍興里 운흥리雲興里 입석리立石里 울곡리粟谷里 신세리新世里 원북리院北里 안막곡安莫谷 삼곡리三谷里 천리泉里 당북리堂北里 북금리北禁里 내거천리內居千里 외거천리外居千里

(3) 읍치관련지명

안동부는 평지에 자리 잡아 수읍을 정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석성인 읍성<sup>5)</sup>은 둘레가 2천 9백 47척, 높이가 8척이며, 안에 우물 18군데, 2 곳의 개울, 5 개의 못이 있었다. 읍성은 많이 파괴되어 무너져 있던 것을 임진왜란이 일어

나던 해인 1592년에 안동부사 정희적(鄭熙積)이 조정의 명으로 보수하였다 한다(임재해·임세권, 1986). 안동읍성에는 사방에 문루와 망루가 있었고 성안에는 동헌 등 관아와 부속건물이 있었다. 사청(射廳)은 세조 때에 부사 한치의(韓致義)가 세우고, 권반(權攀)이 명명하고 기(記)를 지었다 한다. 『신증

표 3. 안동부 고지도의 행정지명(방면·속현·동리·읍치)

방면 · 속현	북후면 北後面 【海】 【備】 【朝】 【興】
	풍북면 豊北面 【海】 【備】 【朝】 【興】
	동선면 東先面 【海】 【備】 【朝】
	동후면 東後面 【海】 【備】 【朝】
	서후면 西後面 【海】 【備】 【朝】
	남후면 南後面 【海】 【備】 【朝】
	임북면 臨北面 【海】 【備】 【朝】
	임서면 臨西面 【海】 【備】 【朝】
	임남면 臨南面 【海】 【備】 【朝】
	풍남면 豊南面 【海】 【備】 【朝】
	풍서면 豊西面 【海】 【備】 【朝】
	서선면 西先面 【海】 【備】 【興】
	남선면 南先面 【海】 【備】 【朝】
	일직현 一直縣 【海】 【備】 【大:一直古縣】
	내성면 乃城面 【備】 【朝:奈城面】 【興】
	감천면 甘泉面 【備】 【興】 【大:甘泉古縣:飛地】
	임동면 臨東面 【海】 【朝】
	북선면 北先面 【備】 【朝】
	풍현면 豊縣面 【備:豊縣內面】 【朝】
	소천면 小川面 【備】 【朝:小川部曲】
	재산면 才山面 【備】 【朝:才山縣】
	길안면 吉安面 【備】 【大:吉安古縣】
	임하면 臨河面 【朝】 【大:臨河古縣】
	일직면 一直面 【朝】 【大:一直古縣】
북광면 北光面 【海】	
하 면 河 面 【海】	
서광면 西光面 【海】	
개 단 皆 丹 【海】	
춘양면 春陽面 【備】	
풍 산 豊 山 【大:古縣】	
감 천 甘 泉 【大】	
동리	하회(동) 河回(洞) 【海:河面】 【備】 【朝】 【興】 【大:河洞】
읍치	아 사 衙 舍 【海】
	읍 치 邑 治 【備】
	남 문 南 門 【興】
	동 문 東 門 【興】
	북 문 北 門 【興】
	서 문 西 門 【興】
아 衙 【興】	
안 동 安 東 【大:有城】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남문(南門) 안에 참루(斬虜臺)를 쌓아서 터를 만들고 지은 한 채의 집으로서 활 쏘는 일에 편의(便宜)하여 사청(射廳)이라 하였다 한다(안동향교사, 1992). 읍성 안에 지은 누정으로는 객사의 대문 밖의 관풍루(觀風樓)를 비롯하여, 객사 동쪽에 덕민루(德民樓)와 망호루(望湖樓)가 있다. 읍성 안 누정은 전시에는 주장대(主將臺)로, 평시에는 집회, 연회, 또는 지방관리와 출장관의 휴식장으로 이용되었다(권오식, 1997).

안동대도호부는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부 고지도에 나타난 읍치관련 지명은 매우 적은 편이다. 동헌 등 주무 관청과 누정 등에 대한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읍치임을 나타내기 위한 ‘邑治’라는 지명은 군사계열의 ‘비변사 인영남지도’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는 읍성의 사방에 두었던 성문과 주관청인 아사가 ‘衙’로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 고지도와는 달리 안동부의 읍지인 『영가지』에는 읍성 내의 시설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영가지』에 의하면 대청은 동서로 행랑을 4칸 두었으며 동헌은 안쪽과 바깥청사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6칸과 14칸이었다 한다. 상아는 객사 동쪽에 있으며 본래 이아(二衙)였다. 아동헌은 이아 북문 밖 저수산 아래에 있었으며 법조(法曹) 관청이었는데 법조가 허물어지고 난 뒤 의원(醫院)이 되었다. 부사는 세 공신 묘 3칸과 내청사 3칸, 외청사 12칸, 방 3칸, 동랑 8칸, 남랑 4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영가지’에 수록된 읍성 관청들이다.

---

대청大廳 동헌東軒 상서현上西軒 하동헌下東軒  
 하서현下西軒 남별관南別館 아동헌衙東軒 영천궐  
 廳 관청官廳 에련당愛蓮堂 군기방軍器房 부사府  
 司 서역소胥役所 종루鐘樓 사창司倉 공수公須 무  
 학당武學堂 사청射廳 상아上衙

---

### 3) 군사지명

#### (1) 성곽지명

안동부는 경북 북부지방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곳으로서 다른 군현에 비해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성터가 남아있는 곳도 약 13곳에 이른다(이동신, 1998). 평산성<sup>6)</sup>인 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산성이다. 대부분 신라시대에 축조된 안동의 산성들은 거의 골짜기를 둘러싸고 내부에 넓은 계곡을 포용한 포곡형 산성인데 이는 안동의 지형이 저산성 구릉에 의한 분지로 이루어져 주변에 많은 산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안동부의 산성이 대부분 북쪽에 치우쳐 분포하는 것은 신라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산성은 왜구의 침입에 대한 대비나 적의 침입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이동신, 1998).

안동부의 고지도에는 읍성을 제외한 성곽에 대한 표기는 없다. ‘해동지도’에 유일하게 표현된 구산성기(舊山城基)는 읍성의 외성인 청량산성터인 것으로 짐작된다. 석성이었던 이 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동대도호부 ‘산성조’에 보면 ‘둘레가 1천 3백 50척이고 우물이 7개소, 시대가 2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적혀 있다.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책가(冊街)는 읍치 동북쪽 영남산(嶺南山)에 읍치를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산성 주위에 박았던 목책으로 추정된다(이동신, 1994). ‘대동여지도’에는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하기 위해 안동부로 왔을 때 쌓았다는 하가산 산성과 하지산 산성이 과거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지도에는 과거에 성이 있었거나 성터가 남아 있는 곳만을 간단히 나타낸 반면 ‘영가지’의 성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다. 부의 동쪽 솔마촌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양을 사육하기 위해 쌓은 양장성이 있다. 『영가지』에는 학가산, 천등산, 개목산, 풍악산에 축성한산성도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왕의 피난처로 알려진 개단석성과 도력현에 있는 개단토성도 기재되어 있다. 이 지역이 반이군(潘伊郡)이었을 때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천석성과 산성의 형태가 ‘乃’자와 비슷하여 이름 지은 내성산성도 찾아볼 수 있다.

---

양장성羊腸城 학가산성鶴駕山城 천등산성天燈山城  
 개목산성開日山城 풍악산성豊岳山城 길안석성  
 吉安石城 개단석성皆丹石城 소천석성小川石城 대  
 산성大山城 나치성羅峙城 청량산성淸涼山城 내성  
 산성乃城山城 개단토성皆丹土城

---

#### (2) 봉수지명

안동부는 동래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위기 상황을 수도 한양으로 알리는 간봉의 지점으로 주요 역할을 하였다. 안동부 내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는 개목산봉수, 봉지산봉수(남산봉수), 신석산봉수, 약산봉수, 소산봉수, 당북산봉수 등이 있다. 『영가지』에 실려 있는 봉수기록을 보면 안동부의 봉수구조는 별장 2명, 감고 2명, 군인 6명을 두었으며 물적 설비로는 나무못지 15자루, 햇불 100자루, 불끄개 5자루, 마른 풀 5단, 물바가지 5개, 옹기그릇 5개, 말뚝 5석을 두었다(안동시사 1, 1999).

부의 남쪽에는 봉지산으로도 불리는 남산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남산봉수는 동쪽으로 신석산봉수에, 남쪽으로는 일직현 감곡산봉수에, 서쪽으로는 풍산현 소산봉수에, 북쪽으로는 개목산봉수에 응한다. 역시 부의 남쪽에 있는 신석산봉수는 동쪽으로 임하현 약산봉수에, 서쪽으로 남산봉수에 응한다. 임하현의 약산봉수는 동쪽으로 진보현 남

각산봉수에, 서쪽으로 신석산봉수에 응한다. 풍산현 남쪽의 소산봉수는 서쪽으로 예천군 서암산봉수에, 동쪽으로 본 부의 남산봉수에 응한다. 내성현의 당북산봉수는 동쪽으로 봉화현 용점산봉수에, 서쪽으로 영천군 성내산봉수에 응한다. 부의 북쪽에 있는 개목산봉수는 남쪽으로 남산봉수에, 북쪽으로 예안현 녹전산봉수에 응한다. 일직현의 감곡산봉수는 남쪽으로 의성현 마산봉수에, 북쪽으로 남산봉수에 응한다.

개목산봉수, 감곡산봉수, 신석산봉수, 약산봉수, 소산봉수, 당북산봉수는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들에 모두 표현 및 표기되어 있다. 표기 방법은 ‘烽臺’, ‘烽燧’, ‘烽’ 등 다양하다. 남산봉수는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만 표기되어 있으며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는 봉지산봉수로 표기되어 있다. 『영가지』와 고지도의 봉수지명은 일치하여 지명공유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안동부 고지도의 군사지명(성기·관액·봉수·요충)

성기	구산성기 舊山城基 【海】 책가册街 【人】 하지산고산성 下枝山高山城 【大】 하가산고산성 下柯山高山城 【大:有城】
관액	석포험액 石浦險陴 【海】 추현험액 楸峴險陴 【海】 험액險陴 【海5】 후현험액 後峴險陴 【海】
봉수	개목산봉수 開日山烽燧 【海:開日山烽】 【備:開日山烽臺】 【朝:開日山烽臺】 【興】 당북산봉수 堂北山烽燧 【海】 【備】 【朝:堂北山烽】 【興】 신석산봉수 中石山烽燧 【海】 【備】 【朝:中石山烽】 【興】 약산봉수 藥山烽燧 【海】 【備】 【朝】 【興:藥山】 감곡산봉수 甘谷山烽燧 【海】 【備:甘谷山烽臺】 【朝:甘谷山烽】 【興】 봉지산봉대 峯枝山烽臺 【海:南山烽燧】 【備】 南山烽 【朝】 【興】 봉수烽燧 【朝】 봉수烽燧 【興】
요충	대현요충 大峴要衝 【海2】 요충要衝 【海2】 미천평요충 彌川坪要衝 【海】 백아현요충 白鵝峴要衝 【海】 별관현요충 伐冠峴要衝 【海】 석구지요충 石九之要衝 【海】 석현요충 石峴要衝 【海】 송현요충 松峴要衝 【海】 저수산요충 猪首山要衝 【海】 선어연하평요충 仙魚淵下坪要衝 【海】

(3) 관액 및 요충지명

산지 혹은 육로를 통하여 고을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검문소적인 관액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고을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간주되었다. 안동부에는 동북쪽으로는 낙동강 상류에 설치된 포구인 석포(石浦)에 관액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영양으로 이어주는 고개길인 추현(楸峴) 및 반야산(盤也山), 그리고 의성으로 이어주는 두력현(豆力峴), 천등산의 두모현(豆毛峴) 등에도 관액이 설치되어 있다. 관액지명은 '해동지도'에만 표기되어 있다.

과거에는 고을의 방어를 유리한 지역, 즉 적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은 요충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안동부의 경우에도 부내 외에 '요충'으로 알려진 곳이 많았다. 서후면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넘어 동으로 가면 읍치에 도달하게 된다. 이 산지의 대현(大峴)과 송현(松峴)은 안동부의 요충지다. 대현과 송현 외에도 읍치의 동북쪽 북선면에는 읍치 방어를 유리한 장소로서 별관현(伐冠峴) 요충지가 있다. 타 군현으로부터 안동부로 들어오는 주요 고개는 대부분 요충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의성에서 안동부로 들어오는 고개길인 석현(石峴), 예천과의 고개길인 백아현(白鵝峴) 등이 대표적이다. 일직면과 남후면에 걸쳐 낙동강에 물을 합치는 미천평과 선어연 주변 평야지역도 안

동부로 들어오는 길목으로서 요충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요충에 관한 표기는 '해동지도'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표 4). 관액 및 요충과 관련한 지명은 '영가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경제지명

(1) 창고지명

안동부의 경제지명은 창고지명이 유일하다. 창고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세, 즉 세곡을 받아서 보관하는 장소이다. 세곡의 용이한 수집을 위하여 조선시대에는 사창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동부 고지도에는 다른 경제지명보다도 우선적으로 창고의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 사창지명은 대부분 해당 마을의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 데 사창의 실제 위치에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마다 창고를 둔 것은 백성에게 봄에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곡식을 쌓아 놓는 장소로서 사창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지적 배려로 생각된다.

안동부에는 읍창이 3개 있으며 소천창·재산창·춘양창·감천창·내성창·풍산창은 옛날 속현이었던 자리에 있다. 금소창·안기창은 각각 금소역과 안기역에 두었다. 그리고 석보면에는 석보창

표 5. 안동부 고지도의 경제지명(창고·제언)

창고	마령창 馬嶺倉	【海】	【備】	【朝:烏峯倉】	【輿】
	임하창 臨河倉	【海】	【備】	【朝:臨河古縣倉】	【大:臨河倉】
	감천창 甘泉倉	【海】	【備】	【朝:甘泉面倉】	【大:甘泉倉】
	길안창 吉安倉	【海】	【備】	【朝】	
	일직창 一直倉	【海】	【備】	【朝】	
	내성창 乃城倉	【海】	【備】		
	소천창 小川倉	【海】	【備】		
	풍산창 豊山倉	【海】	【備】		
	재산창 才山倉	【海】	【備】		
	사 고 史 庫	【海】	【輿】		
	광덕창 廣德倉	【備】	【朝】		
	창 倉	【朝4】	【輿10】		
	춘양창 春陽倉	【海】			
	서 창 西 倉	【海】			
	사 창 社 倉	【輿】			
금 소 琴 召	【大】				
풍 산 豊 山	【大】				
제언	여자지 女子池	【輿】			



을 두었다.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는 구체적인 창고명을 제시하면서 지명을 많이 수록해 두었다. 반면 『여지도서』와 ‘조선지도’에는 구체적인 창고지명이 생략된 채 ‘倉’, ‘社倉’ 등으로 창고를 표시해 두었다. 창고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 고지도에 비하여 『영가지』에는 창고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언지명으로서 풍산현에 있는 여자지(女子池)는 관개용 저수지로서 『여지도서』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표 5). 비교적 적은 지명이지만 ‘영가지’에는 여자지 이외의 제언표기를 찾아볼 수 있다. 안동부의 제언은 대부분 홍수와 관계를 가진다. 포항제와 송제는 각각 1605년 홍수를 전후하여 예방과 복구 차원에서 축조한 제언들이다. 대현지와 사지는 풍산현에 있는 제언들이다. 다음은 고지도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영가지』에는 표현된 제언지명이다.

포항제浦項堤 송제松堤 대현지大峴池 사지筍池

### 5) 교통지명

『영가지』에 의하면 안동부에는 읍치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가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동로(東路)는 견장진에서 금소역을 거쳐 청송부 경계에 이르는 길과 임하현을 지나 진보현의 경계에 이르는 길, 다시 임하현에서 영양현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서로(西路)는 모은루에서 풍산현을 거쳐 예천군과 연결되고, 남로(南路)는 영호루에서 일직현을 지나 의성현에 이르는 길이다. 북로(北路)는 석수암에서 용천역을 거쳐 영천군에 이르는 길과 송저현을 넘어 예안현과 연결되는 길이다. 이외에도 서간(西澗)을 지나 다인(多仁)에 이르는 길과 안교역을 거쳐 용궁현에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안동시사 1, 1999).

#### (1) 고개 및 도진지명

안동부는 동북쪽으로 많은 산지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풍기, 순흥, 예천 등 이웃 군현으로 이어주는 고개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안동부를 그린 고지도에서 고개지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개지명은 ‘峴’, ‘嶺(峯)’, ‘峙’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양군과 안동부를 이어주는 추령(楸嶺)은 ‘비변사인영남지도’, ‘조선지도’,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는 ‘楸峴’으로 표기되어 있다. 석현(石峴)과 구수현(九水峴)은 각각 의성군과 봉화군을 안동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길안현 모방산에 있는 모현(茅峴)고개를 넘어 봉화에 이를 수 있다. 이외에도 임하현의 이이현(耳而峴), 부의 북쪽 천등산 고개인 두모현, 일직현의 귀령(龜嶺), 부의 남쪽에 있는 고암현(古巖峴) 등의 고개가 이웃 고을 및 부 내의 동리들을 연결해준다. 다른 지도들에 비하여 군현지도집 지도인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 많은 고개지명이 표기되어 있다(표 6).

안동부에는 일직현으로 가는 큰길에, 안기현 북쪽으로부터 옹천에 달하는 길에, 안동부로부터 안강현에 달하는 길에, 하회마을 거쳐 비안에 달하는 길에 각각 네 개의 대현(大峴)이 있다. ‘해동지도’에서만 두 곳의 대현 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영가지』에는 수록되어 있는 많은 고개지명 중 일부는 고지도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영가지』에 더 많은 고개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일부지명은 고지도와 『영가지』에 독립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다른 지명항목에 비하여 고개지명의 경우 읍지와 고지도 간의 지명의 공유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성구현은 안동부와 예안에 이르는 대로를 병산과 연결하는 고개로서 고려시대 이 고개에서 견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하였다 한다. 안동부와 속현을 이어주는 고개길, 즉 일직현과 풍산현으로 가는 큰길에 있는 광음현, 금당현·송현, 감천현으로 가는 유현 등이 고지도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에서 지명을 찾아볼 수 없는 저수현은 안동부의 진산으로서 ‘영가지’에 의하면 고려왕이 견훤을 칠때 유검필(庾黔弼)이 군사를 이끌고 이 고개에서 견훤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한다. 다음은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영가지』에는 수록된 고개지명이다.

성구현城寇峴 면현免峴 광음현光音峴 송현松峴  
금당현金堂峴 신석현申石峴 유현鎭峴 마당현馬堂峴  
광흥현廣興峴 저수현渚首峴 오리현梧里峴 소도마현小道麻峴 옥산현玉山峴 정현正峴 주예현舟曳峴 이이현耳而峴 탄당현炭堂峴 용각현龍角峴 소두이현小斗易峴 대두이현大斗易峴 오야현五野峴 기현岐峴 우현雨峴 사현莎峴 전피현箭皮峴 장현獐峴 조현助峴 오적현五赤峴 만항현晩項峴 고적현高適峴 개전현楷田峴 병현竝峴

표 6. 안동부 고지도의 교통지명(고개·도진·역원)

고개	추령	楸嶺	【備】	【朝:楸峴】	【大:楸峴】
	구수현	九水峴	【海】	【備】	
	두모현	豆毛峴	【海】	【朝】	
	모현	茅峴	【海】	【大】	
	석현	石峴	【海】	【大】	
	동산현	東山峴	【備】	【朝】	
	고암현	古岩峴	【朝】	【大】	
	계외령	階外峯	【朝】	【大】	
	덕현	德峴	【朝】	【大】	
	산성현	山城峴	【朝】	【大】	
	이이현	耳而峴	【朝】	【大】	
	두역현	斗亦峴	【備】		
	백야현	白也峴	【備】		
	병산현	瓶山峴	【備】		
	석포령	石蒲嶺	【備】		
	복령	卜嶺	【備】		
	시현	匙峴	【備】		
	직현	直峴	【備】		
	마령	馬峯	【大】		
구령	龜峯	【大】			
<p>계현溪峴 대령大峴 대현大峴 광현光峴 산성령山城嶺 도력현道力峴 두력현斗力峴 웅현熊峴 장현獐峴 적덕현赤德峴 첨령捷嶺 축령楸嶺 침령砮嶺 예부현禮夫峴 회선령懷仙嶺 【海】                      곤니현昆泥峴 광연현光淵峴 구빙현九氷峴 두현豆峴 백현白峴 봉정치鳳亭峙 사치沙峙 외야현外也峴 지현枝峴 파잠현破蠶峴 풍현楓峴 【朝】</p>					
도진	도목진	道木津	【備】		
	포항진	浦項津	【備】		
	견항진	犬項津	【大】		
역원	송계역	松蹄驛	【海】	【備】	【朝】
	안교역	安郊驛	【海】	【備】	【朝】
	유동역	幽洞驛	【海】	【備】	【朝】
	금소역	琴召驛	【海】	【備】	【朝】
	웅천역	瓮泉驛	【海】	【備】	【朝】
	운산역	雲山驛	【海】	【備】	【朝】
	안기역	安奇驛	【海】	【朝:安奇】	【大:安奇】
	계원	溪院	【朝】		

안동부의 물자를 이출입하거나 사람을 실어 나르던 도진으로는 부의 동쪽 물야탄의 하류에 설치된 견항진(犬項津)이 있다. 임북면의 낙동강가에 설치된 도목진(道木津)과 읍치 바로 앞을 흐르는 낙동강가의 포항진(浦項津)도 안동부의 교통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목진과 포항진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견항진은 '대동여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가지'에도 견항진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2) 역원지명

육상교통에 있어서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은 도로로서 안동부에도 물자의 수송과 관리의 출장 등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역원을 설치하였다. 안동부의 역원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인 원(院)을 역(驛)보다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는 원이 역보다 운영비가 적고 민간 운영도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안동시사 1, 1999).

안동부에는 역도(驛道)로서 안기도(安寄道)가 부의 서북쪽 5리 지점에 설치되었다. 찰방(察訪)이 여기에 소속된 주변 10개 역의 역장을 다스려 나갔다. 속역은 일직현의 동쪽에 위치한 운산역(雲山驛), 금소천 북편 언덕에 위치한 금소역(琴召驛), 임하현의 송제역(松蹄驛), 감천현의 유동역(幽洞驛), 풍산현 북쪽에 위치한 안교역(安郊驛), 부의 북쪽에 있는 웅천역(瓮泉驛) 등이다. 웅천역과 안교역은 경상도 역승 중 하나인 창락도(昌樂道) 소속의 역이다. 출장 중인 관원이나 여행자의 유숙소로 이용되었던 원(院)으로는 '조선지도'의 계원(溪院)이 유일하다.

고지도와 『영가지』의 역원지명에서 역의 지명은 동일하게 공유하나 원의 지명은 『영가지』에는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고지도에는 생략되어 있다. 부의 동쪽으로 관음원(觀音院)·소음마원(所乙麼院), 부의 남쪽으로 관원(館院), 부의 서쪽으로 자제원(慈濟院)·영추원(迎秋院)·도솔원(兜率院), 부의 북쪽으로 연비원(燕飛院)·낙목원(落木院)·비사원(飛沙院)·오리원(吾里院)을 설치하였다. 이 외에 독천 언덕의 독천원(秃川院), 두모현과 모현 아래 두모원(豆毛院)·모현원(茅峴院)이 있었다. 임하현을 중심으로 망지원(望至院)·신읍곡원(申邑谷院)·보제원(普濟院), 감천현을 중심으로 양재원(楊才院)·귀모원(歸毛院), 풍산현을 중심으로 감마원(甘麼院), 소천북쪽에는 가라연원(加羅淵院)을 두었다. 모든 지도에 주요 역이 표기되어 있다. 다음은 『영가지』에 기술된 원 지명들이다.

---

관음원觀音院 소음마원所乙麼院 관원館院 자제원慈濟院  
 영추원迎秋院 도솔원兜率院 연비원燕飛院 낙목원落木院  
 비사원飛沙院 오리원吾里院 독천원秃川院 두모원豆毛院  
 모현원茅峴院 망지원望至院 신읍곡원申邑谷院 보제원普濟院  
 양재원楊才院 귀모원歸毛院 감마원甘麼院 가라연원加羅淵院

---

## 6) 문화지명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을 삼아 유교와 관련된 교육 및 의례 내용이 고지도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 향교와 서원으로 대표되는 교장, 유림의 교육 및 여흥공간인 누정, 불교문화의 잔존으로서의 사찰, 나라에서 정해준 제사공간인 사직단·

성향단·여단 등이 예이다. 영남사림의 중심지였던 안동부에는 유교의 교육 및 의례공간이 다른 군현에 비하여 매우 많았으며 이 공간들은 조선사회 지식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유교적 이념을 지역 사회에 유포, 정착시키고 일상생활의 유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기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기혁, 2002). 조선시대 그려진 안동부 군현지도 및 지리지 부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반영되고 있다(표 7).

### (1) 교장지명

조선시대 가장 보편적인 교장으로서는 향교가 있다. 『영가지』에 의하면 안동향교(安東鄉校)는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읍성 북쪽에 있으며 '子座南向'으로 자리하였으며 누(樓)가 있었다 한다(안동향교지, 1992). 안동향교는 안동부에 거주하던 각 성 명문의 재지사족(在地士族)의 기반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이들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족문화연구소, 1991).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서 향교의 표현과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서원은 사학기관으로서 유교적 통치이념을 전수함과 동시에 각 지방 유림의 정치적 근거지였으며 지식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지역적 단위였다. 서원은 선현을 제향하는 사묘(祠廟)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는데 가묘(家廟), 생사(生祠), 사우(祠宇), 영당(影堂) 등 다양한 형태의 사묘 중에서 서원과 관련된 것은 생사와 사우이다. 생사는 경현사(景賢祠)로 개칭되어 서원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고 그 후 서원으로 바뀌어 유생의 교학장소가 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창설은 곧 사람세력의 성장을 의미한다. 서원의 등장이 기묘사화이후 사람세력이 중앙에 진출하는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을묘사화를 통해 뜻있는 선비들이 과거를 단념하고 향리에 내려가 서당이나 정사를 통해 향리의 자제들과 젊은 인재를 교육하는 데 정열을 쏟았던 일은 관학의 쇠퇴에 대한 사학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퇴계의 학문자세와 교학정신기에 혼도되었던 안동의 선비들은 그들의 재지적 기반위에 수많은 서당과 정사를 세워 퇴계의 이와 같은 정신을 꾸준히 계승하였다. 16-17세기에 걸쳐

안동의 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서원창설은 이와 같은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오수경, 1996).

영남사림(嶺南士林)의 주요 고을답게 안동부의 고지도에는 많은 서원이 표시되어 있다.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는 4~5곳의 서원지명이 표기된 반면 『여지도서』에는 9곳의 서원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는 가장 많은 11곳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축적전국전도인 ‘대동여지도’에서는 서원지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안동부에 서원 중에서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는 삼계서원(三溪書院: 1660(사액받은 연도))·호계서원(虎溪書院: 1676)·주계서원(周溪書院: 1693)·서간사(西澗祠: 1786)·병산서원(屏山書院: 1863) 등 5개이며(안동시사, 1999), 이 중 병산서원만이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속에서도 살아남아 보전되고 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계거(溪居)’를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로서 제안하였고 사대부들은 유교적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주거지로서 받아들였다(김덕현, 1991). 안동부의 서원명에서 시내를 뜻하는 ‘계(溪)’를 많이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 유림의 정신적 고향인 안동의 사대부들이 택리 중 복거(卜居)의 개념을 교장의 입지에도 적용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호계서원·삼계서원·주계서원·구계서원·목계서원 등이 그 예이다.

병산서원은 광해군 5년(1613)에 정경세(淸敬世 鄭經世) 등 지방유림의 공의로 유성룡(西厓 柳成龍)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철종 14년(1863)에 사액 받았다. 고종 5년(186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올 때도 철거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병산서원은 풍천들을 지나 화산의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서원 앞에 낙동강 물줄기를 호위하듯 서 있는 절벽에 이어진 산이 병풍같이 솟은 산이라 하여 ‘병산(屏山)’이라 이름 붙였다 한다(안동문화연구원, 2000).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병산서원의 표현과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임북면에 있는 호계서원은 선조 8년(1575)에 지방 유림이 건립하여 이황을 주향하고 광해군 12년(1625)에 김성일과 유성룡을 배향하였다. 원래 여강서원(廬江書院)으로 불리다가 숙종 2년(1676)에

사액 당시 호계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삼계서원은 선조 21년(1588)에 세웠고, 현종 원년(1660)에 사액하였다. 권벌(權撥)을 배향하였다. 주계서원은 광해군 4년(1612)에 세웠고, 숙종 19년(1693)에 사액 받았으며 구봉령(具鳳齡)·권춘란(權春蘭)을 배향하였다. 역시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안동향교지, 1992).

『여지도서』에서 유일하게 지명을 찾아볼 수 있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은 1574년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세운 서원이다. 낙동강의 상류를 굽어보는 자리에 위치하였으며 이황이 은거하면서 강학하던 곳이다. 고죽서원(孤竹書院)은 정조 15년(1790)에 세우고 정조 22년(1798)에 사액받았다. 김계(金濟)·김주(金澍) 형제를 배향하였다. 서간사(西澗祠)는 숙종 15년(1689)에 세우고, 정조 10년(1786)에 사액받은 서원으로 김상헌(金尙憲)을 배향하였다. ‘대동여지도’에 ‘西澗’으로 지명이 실려 있다. 임남면에 있는 목계서원은 숙종 13년(1687)에 창건하고 김계행(金係行)과 옥고(玉沽), 그리고 김용(金涌)을 봉향하고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와 ‘조선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경광서원(鏡光書院)은 선조 1년(1568)에 유정사 자리에 서당을 창건한 뒤 현종 3년(1662)에 정사(精舍)로 개칭하고 백죽당 배상지와 용재 이종준의 위패를 봉안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훼손된 뒤 1873년에 단소를 설립하여 향사를 지내왔다. 풍산면에 있는 청성서원(淸城書院)은 조선 선조 때의 학자 권호문을 제향하고 있다. 길안면에 있는 도연서원(陶淵書院)은 숙종 29년(1703)에 세웠으며 김시온(金是溫)·김학배(金學培)를 배향하였다. 서원 내에 와룡초당(臥龍草堂)과 송정(松亭)이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위 세 곳의 서원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서 경광서원의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지도’와 『여지도서』에는 청성서원이 ‘靑城書院’으로 표기되어 있다.

임하면에 있는 사빈영당(泗濱影堂)은 청계 김진(金璉)을 배향하였으나 숙종 11년(1685)에 사람과 내외손이 합의하여 묘호를 경현사로 하였다가 숙종 35년(1707)에 마을 밖 사수(泗水)변으로 이관하여 사빈서원이라 하였다. 남선면의 노림서원(魯林書院)은 효종 4년(1635)에 퇴계의 제자인 남치리(南致利)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후에 사

표 7. 안동부 고지도의 문화지명(교장·누정·사찰·제단·사묘·탑비)

교장	호계서원 虎溪書院 【海】 【備】 【朝】 【興】 향 교 鄉 校 【海】 【備】 【興】 병산서원 屏山書院 【海】 【備】 【興】 삼계서원 三溪書院 【海】 【備】 【興】 청성서원 淸城書院 【備】 【朝: 淸城書院】 【興: 淸城書院】 도연서원 道淵書院 【備】 【朝】 묵계서원 默溪書院 【備】 【朝】 경광서원 鏡光書院 【備】 【興】 구계서원 龜溪書院 【備】 【興】 물계서원 勿溪書院 【備】 【興】 주계서원 周溪書院 【備】 【興】 강 무 당 講 武 堂 【海】 노림서원 魯林書院 【備】 사빈영당 泗濱影堂 【朝】 서 원 書 院 【朝 6】 도산서원 陶山書院 【興】 서 간 西 齋 【大】
누정(대)	영호루 映湖樓 【海】 【備】 【朝】 【大】 모은루 慕恩樓 【海】 【備】 【興】 귀래정 龜來亭 【備】 【興: 歸來亭】 반구정 伴鴈亭 【備】 【興】 삼구정 三龜亭 【備】 【興】 망호루 望湖樓 【備】 【興】 임청각 臨淸閣 【備】 【興】 청암정 淸巖亭 【備】 【興: 淸巖亭】 옥연정 玉淵亭 【備】 【興】 제남루 濟南樓 【海】 종 루 鍾 樓 【海】 백운정 白雲亭 【備】 석문정 石門亭 【備】 선유정 仙遊亭 【備】 사빈정사 泗濱精舍 【備】 산객사 山客舍 【興】 북남루 北南樓 【興】 상락대 上洛臺 【大】 낙수대 落水臺 【大】
사찰	광흥사 廣興寺 【海】 【備】 【興】 봉정사 鳳停寺 【海】 【備】 황산사 黃山寺 【海】 【備】 대 사 大 寺 【海】 서악사 西岳寺 【備】 연대사 蓮臺寺 【備】 연미사 燕尾寺 【備】 용담사 龍潭寺 【備】 취서사 鷺栖寺 【備】 홍제암 洪濟菴 【備】 각화사 覺華寺 【興】

제단	사 직社稷 【輿】 여 단厲壇 【輿】 성황단 城隍壇 【輿】
사묘	관왕묘 關王廟 【海】 【備】 태사묘 太師廟 【海】
탑비	동 주棟柱 【海】 석 탑石塔 【輿】

액 받았으나 훼손되었다(안동향교지, 1992). 사빈영당은 ‘조선지도’에서, 노림서원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지명항목에 비하여 『영가지』와 고지도는 많은 서원지명을 공유하고 있다. 『영가지』에 수록된 정사(精舍), 서당(書堂), 서재(書齋) 지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지명을 고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서원지명 중 석문정사는 성안에 있으며 김성일이 구축하여 퇴휴(退休)의 장소로 삼았다 한다. 겸암정사와 원지정사는 각각 하회마을 북쪽 절벽과 옥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옥연정사는 역시 하회 빈연 아래 절벽의 동쪽에 있는 데 능허대(凌虛臺)와 보허대(步虛臺)가 있다. 다음은 『영가지』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서원명들이다.

---

한서정사寒棲精舍	석문정사石門精舍	겸암정사謙 菴精舍	원지정사遠志精舍	옥연정사玉淵精舍	양과 서당陽坡書堂	도생서당道生書堂	팔우서당八繭書 堂	양정서당養正書堂	용천서당龍泉書堂	이계서당 伊溪書堂	지양서당芝陽書堂	가야서당佳野書堂	용 협서당龍峽書堂	면제서당面提書堂	구담서당九澗 書堂	봉산서당鳳山書堂	옥명서당玉屏書齋
----------	----------	--------------	----------	----------	--------------	----------	--------------	----------	----------	--------------	----------	----------	--------------	----------	--------------	----------	----------

---

(2) 누정<sup>8)</sup>지명

안동부는 낙동강과 반변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양 강가에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많고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다른 군현에 비해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유림이 사적으로 건립한 누정 이외에 관에서도 많은 누정을 건립하였다. 망호루(望湖樓)·관풍루(觀風樓)·추흥루(秋興樓)는 관아의 공간에 지었고, 읍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5리 지점에 관문격으로 누정을 설치하였다. 동쪽에 영춘정(迎春亭), 북쪽에 영은정(迎恩亭), 서쪽에 모은루(慕恩樓), 남쪽에 영호루(映湖樓)가 있어 전시에는 진영 또는

초소로 이용하고 평시에는 관에서 주로 이용하였으나 주민과 나그네의 휴식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권오식, 1997).

읍치 남쪽에 있는 영호루는 ‘映湖’라는 누명과 같이 사방경관이 아름답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광은 장관이었다 한다. 그러나 강호와 너무 근접해 있어 홍수 때마다 유실되어 복원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창건이나 중건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고려 김방경(金方慶) 장군이 원종 15년(1274)에 일본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누정에서 시를 지었음을 보아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권오식, 1997).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강과 산의 뛰어나고 큰 모양은 비록 진주의 촉석루(巖石樓), 밀양의 영남루(嶺南樓)에는 양보해야 할지도 모르나, 같이 낙동강의 언덕에 버티고 선 것으로 .....중략, 이 누(樓)와 더불어 갑을(甲乙)을 다룰 수 없다’고 하여 그 빼어난 풍광을 짐작할 수 있다. 영호루는 『여지도서』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영춘정은 부의 동쪽에 있으며 옛 이름은 천재정(千載亭)이었다. 1420년에 부사 최관(崔關)이 천태종 승려인 의호(義湖)로 하여금 시주를 모아서 짓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매년 입춘 날에는 제수를 차리고 여기에서 일출을 맞이하였다 한다. 부의 북쪽에 있는 영은정은 고려 충렬왕이 현액을 제명하였다 한다. 모은루는 부의 서쪽에 있으며 세조 때에 부사 한치의(韓致義)가 세우고, 권반(權攀)이 명명하고 기(記)를 지었다. 영은루와 영춘정의 지명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모은루는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 표기되어 있다.

삼구정(三龜亭)은 안동부의 속현인 풍산현의 서쪽 6리 동오봉(東吳峯)위에 자리잡고 있다. 영전(永銓)·영추(永鍾)·영수(永銖) 삼형제가 인접 수령으

로 있으면서 노모를 위한 효심으로 건립하였다 하며 정기(亭基)에 큰 돌이 세 개 있어 그 모양이 거북이와 같아 '龜臺'으로 이름하였다 한다.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읍성 동쪽에 있는 귀래정(歸來亭)은 유수(留守) 이평(李滢)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서 외부탄 위에 지은 정자이다. 『여지도서』에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龜來亭'으로 표기되어 있다. 백운정(白雲亭)은 임하면 반변천 기슭 연화봉 아래에 세워져 있으며 이곳에서 약봉공(藥峯公) 오형제(克一·守一·明一·誠一·復一)가 유희를 즐긴 곳이라 한다(서주석, 1994). 백운정은 못 한 가운데의 커다란 암석 위에 지어진 청암정(靑岩亭)과 더불어 '비변사인영남지도'에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이 외에도 석문정(石門亭)·반구정(伴鵠亭)·사빈정사(泗濱精舍)·선유정(仙遊亭)이, 『여지도서』에는 북남루(北南樓)·산객사(山客舍)가 표현 및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표기된 '왕연정(玉淵亭)'은 하회리의 부용대 부근에 유성룡이 건립한 정자인 '옥연정(玉淵亭)'의 오기로 보인다.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옥연정으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임청각(臨淸閣)은 조선 중기(1515년)의 상류주택으로서 세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용헌 이원의 아들 영산현감 이중이 안동산수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여 이 곳에 정착하여 입향조가 되었고 그의 아들인 형조좌랑 이명이 이 집을 지었다고 한다. 임청각은 고성 이씨 탑동파의 종택으로 아흔아홉칸의 대규모 저택이다(오지현·김진균, 2000).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 고지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누정지명을 『영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남문루는 부성 남쪽 문으로서 선조 38년(1605)에 부사 김륙(金勗)이 지었다 한다. 그리고 침벽루는 부의 동쪽 백련사 앞에 세워진 누정이다. 부의 서쪽 작현(鶴峴)에 있는 침호정과 부의 동쪽 가구촌(佳丘村)에 있는 감원정을 비롯하여 고지도에 비하여 '영가지'에는 고을 곳곳에 분포하고 누정들을 모두 다루었다. 다음은 고지도에는 없으나 『영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누정지명들이다.

진남문루 鎮南門樓 침벽루 枕碧樓 침호정 枕湖亭 감원정 鑑源亭 권산정 權山亭 환골정 換骨臺 강정 江亭 하계곡리정 下桂谷里亭 상단지리정 上丹地里亭 송원정 松院亭 압각정 鴨脚亭 함경당 涵鏡堂 의의정 依依亭 경류당 慶流亭 한송정 寒松亭 호은정 壺隱亭 퇴산정 退山亭 구계정 龜溪亭 금역당 琴易堂 만유정 萬柳亭 태양정 沱陽亭 고창정 高唱亭 천당정 泉堂亭 어락당 魚樂亭 침류정 枕流亭 궁구당 肯構堂 선지정 先志亭 삼경당 三徑堂 환수정 環水亭 석천정 石泉亭 송암정 松巖亭 외경당 外影堂

### (3) 사찰지명

『영가지』에 기록되어 있는 불우와 고담, 고적에 의하면 안동의 사지는 110여개로 나타나며 그 외에 지방지에 나타난 사적지를 합하면 총 155개 정도이다. 또한 고노(古老)들에 의하면 동쪽의 법흥사(法興寺)에서 서쪽의 서악사(西岳寺)까지 사찰이 연결되어 흙을 밟지 않더라도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유승선, 1973). 이 말은 약간의 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지방에도 불교가 성했음을 말해준다(권은도, 1986).

안동지방에 많이 분포된 사찰과 더불어 불교가 융성했던 것은 안동부가 낙동강 유역지방에 해당하여 일찍부터 고구려와 역사관계를 맺었으며 교통로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불교를 빨리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 전파의 초기에는 큰 사찰이 건립되었으나 후기에는 민간전파에 따라 규모가 작은 암자들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권은도, 1986).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승유억불정책과 더불어 유학이 성하게 됨으로써 불교문화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만들어진 고지도에서는 이전에 융성했던 불교문화와는 다르게 적은 사찰명을 표기해 두었다.

안동부의 불교사상은 화엄종이 주류를 이루었고 보조적으로 미륵신앙이 정치적 변동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초기 의상대사가 화엄종을 경주보다 먼저 영주 부석사를 중심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웃한 안동부는 화엄종의 근거지가 되었다(안동시사 2, 1999). 광흥사(廣興寺)와 봉정사(鳳停寺)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가장 대표적인 화엄종찰이다. 학가산에 자리잡은 불도도량인 광흥사에는 당우로서 응진전(應眞殿), 응향각(凝香閣)이 있다. 천등산 남쪽 기슭에 자리



한 봉정사는 부석사에서 날린 종이봉황이 이곳에 내려앉아 여기에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사찰 내에는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 중수한 극락전과 조선시대에 건립된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등 고려와 조선시대의 목조건물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이 밖에도 극락전 앞에는 고려시대에 건립한 삼층석탑이 있고 덕취루, 요사 등의 건물이 있으며 영선암, 지조암 등의 부속암자가 있다. ‘해동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두 고찰의 지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여지도서』에는 광흥사만 다루어졌다. 이외에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고을의 불사를 담당 하던 많은 사찰을 표기해 두었는데 신라 문무왕 때 화엄화상이 창건하고 조선 선조 때에 증건한 길안면에 있는 용담사(龍潭寺)를 비롯하여 서악사, 연대사, 연미사, 취서사, 홍제암 등이 지도에 표시 되어 있다. 영남산의 연미원(燕尾院)에 자리 잡은 사찰인 연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나 확실하지는 않다. 연미사의 마애불은 임진왜란 때 명장인 이여송(李如松)이 당시의 제상이 었던 유성룡과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예불을 올린 뒤 지나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영가지』에 수록된 안동부의 사찰지명은 고지도와의 공유성이 매우 낮다. 안동부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인 임하사, 성산사, 마라사를 비롯하여 고지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사찰지명이 ‘영가지’에 기술되어 있다. 부 동쪽 와룡산에 있는 현사사는 임진왜란 때 폐사된 사찰이다. 판서 권에(權輓)가 선영(先榮)을 위해 세운 불당사가 부 서쪽 15리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고지도에서는 살펴볼 수 없으나 ‘영가지’에 기술된 사찰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동악사東嶽寺 현사사玄沙寺 남흥사南興寺 낙타사駱駝寺 유재사遺才寺 성산사城山寺 불당사佛堂寺 연비원불사燕飛院佛寺 개목사開日寺 백안방사白眼房寺 애련사艾蓮寺 벽방사碧房寺 만월암滿月庵 백운암白雲庵 성재암聖齋庵 복림사福林寺 능동사陵洞寺 사망사沙亡寺 수정사水晶寺 거인사巨人寺 봉서암鳳棲庵 가수암嘉水庵 옥산사玉山寺 봉서암鳳棲庵 연사硯寺 황산사黃山寺 동림사東林寺 선찰仙刹 미면사米麵寺 남수암南水庵 삼백암三百庵 월암사月巖寺 중대사中臺寺 가사사袈裟寺 감수암甘水庵 취서사鷺棲寺 서벽사棲碧寺 죽미사竹薇寺

개내사介乃寺 백련암白蓮庵 백운암白雲庵 만월암滿月庵 원효암元曉庵 몽상암夢想庵 보현암普賢庵 문수암文殊庵 진불암眞佛庵 연대사蓮臺寺 별실別室 중대암中臺庵 보문암普門庵 상대승암上乘庵 치원암致遠庵 극일암克一庵 안중암安中庵 상청량암上淸梁庵 하청량암下淸梁庵 고용혈암古龍穴庵 경일암擎日庵 자비암慈悲庵 동암東庵 서암西庵 고도암古道庵 정수암淨水庵

(4) 제단 및 사묘지명

조선시대 모든 군현에는 삼단일묘(三壇一廟), 즉 향교의 문묘(文廟)와 성황단, 사직단, 여단이 설치 되어 있었다. 나라에서 정해진 지방의 공식적인 제사시설로서 읍성 서쪽에는 사직단(社稷壇)을, 동쪽에는 성황단(城隍壇)을, 그리고 부의 북쪽에는 여단(厲壇)을 둠으로서 안동부에도 삼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사직단은 나라의 신과 곡식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지만 가뭄에 비를 비는 기우제와 풍년을 비는 기곡제 등도 여기서 지냈다. 성황산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성황단은 마을수호신인 서낭신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 고을의 잡귀 즉 여귀(厲鬼)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단은 조선 태종1년(1401)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모든 군현에 설치토록 하였다. 여제는 3일전에 성황단에서 밭고제를 지낸 뒤에 본제를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제사는 일년에 세 번, 즉 봄에는 청명일, 가을에는 7월 보름, 겨울에는 10월 초하루에 지낸다. 오직 『여지도서』에서 만 사직단, 성황단, 여단을 살펴볼 수 있다. 나머지 지도에는 제단과 관련한 지명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읍성 안에 위치한 태사묘(太師廟)는 고려 때 공신이었던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길(張吉) 세 태사를 모신 사당이다. 후에 이들 세 명은 각각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 광해군 5년(1613)에 개건하고 묘호를 태사묘로 하였다(류일근, 1983). ‘해동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태사묘의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읍치에는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왔던 명나라 진정영도사(眞定營都司)인 설호신(薛虎愼)이 건립한 관왕묘(關王廟)가 있다. 관왕묘는 관우(關羽)를 신앙하기 위해 건립한 묘당으로서 관성묘(關聖廟)라고도 한다.

설호신은 왜란을 평정한 것이 관우의 령(靈)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향교 뒤 목성산에 선조 31년(1598)에 관왕묘를 세웠다. 이후 1606년에 서악사로 이관하였다. 관왕묘는 임진왜란 극복에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후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관왕묘는 ‘해동지도’에만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고지도에서는 2개의 탐비명이 표기되어 있다. ‘해동지도’의 동주(棟柱)는 『영가지』에 의하면 읍성 남문 밖 1리 쯤 되는 곳에 있는 돌기둥으로서 높이가 한 길쭉이었다 한다. 이 돌기둥으로 인해 마을 이름을 입석(立石)이라 하였다. 『여지도서』에 그려진 석탑은 부성 남문 밖에 있었던 안동부의 ‘대비보(大裨補)’라고 『영가지』에 기록되어 있다.

제단 및 사묘지명의 경우 고지도와 『영가지』의 지명이 거의 일치한다. 지명의 공유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고지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영가지』에는 표현되어 있는 지명도 찾아볼 수 있다. 향교의 동부 후편에 있는 두금사(豆今嗣)로서 동정(洞正) 고준(高俊)의 처 두금이 노비 수십 명을 헌납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한다.

#### 4. 결 론

지명은 장소의 의미를 포함한 상징적 언어이다. 지명에는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순응 및 도전과 관련한 경험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명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은 장소를 이해하며 나아가 지역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과거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접근방법과 당시 지역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안동부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 역시 과거 안동부의 지역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리적 속성으로 간주되며 과거와의 연계선 상에서 현재 이 지역의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지표로서도 가치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안동대도호부 지도를 중심으로 지명분석을 통하여 과거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이 지역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삼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지도는 군현지도집 지도로서 ‘해동지도’, ‘비변사인

영남지도’, ‘조선지도’이고, 지지서의 부도로서 『여지도서』, 대축척전국전도로서 ‘대동여지도’ 등 총 5종의 지도이다. 각 고지도별로 수록된 지명을 추출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명분석 대상의 안동부 고지도 중 군현지도집 지도인 ‘해동지도’, ‘조선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가 지지서의 부도인 『여지도서』나 대축척전국전도인 ‘대동여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지명유형별로는 자연지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문화지명, 교통지명, 행정지명, 군사지명, 경제지명의 순이다. 산천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고지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자연지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영남사림의 중심지로서 안동부의 고지도에 문화지명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안동부 고지도의 자연지명은 산지, 평야, 하천, 호소 및 정천지명으로 요약된다. ‘조선지도’에서 가장 많은 자연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읍지인 『여지도서』의 부도에는 자연지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안동부의 경우는 예외다. 행정지명에서 동리와 읍치의 지명에 비하여 방면과 속현지명이 압도적으로 많이 표기되어 있다. 동리지명으로는 ‘하회마을’이 유일하다. ‘비변사인영남지도’, ‘해동지도’, ‘조선지도’ 등 군현지도집 지도에 다수의 방면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군사지명은 성기, 관액, 봉수, 요충지명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수지명은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성기, 관액, 요충지명은 ‘해동지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지명으로는 창고지명이 유일하다. 조선시대 실시한 사창제의 영향으로 거의 동리마다 설치된 창고가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조선지도’와 같은 군현지도집 지도에 지명으로서 잘 나타나 있다. 교통지명에서 고개와 역원지명은 모든 지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며 일부 지도에서 도진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군현지도집 지도나 대축척전국전도에 비하여 지지서의 부도인 『여지도서』에는 매우 적은 교통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문화지명은 교장, 누정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진 사찰지명을 비롯하여 제단, 사묘, 탐비명도 일부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변

사인영남지도'에 문화지명이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고 다음으로 『여지도서』가 따른다.

지명유형별 특색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지명의 경우 안동부는 태백산맥의 지맥이 동서로 걸치면서 동북쪽과 서북쪽 외곽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로, 서남쪽은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지도에 많은 자연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태백산에서 뻗어 내려 부의 서쪽 산지의 주맥을 형성하는 조골산, 부의 북쪽에서 고을을 진호하는 천동산, 그리고 고을에서 가장 높은 학가산은 거의 모든 지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안동부의 물줄기는 낙동강이 고을의 중심을 관통하여 남류하다가 반변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세를 나타낸다. 낙동강 지명은 '해동지도'가 유일하다. 안동부의 가장 넓은 평야는 풍산들이지만 고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지도에 중요하게 표현 및 표기한 것은 안동부의 주요 물줄기로서 낙동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안동은 고려 태조 때 후백제군을 병산 부근에서 물리친데 대한 전공포상으로 '안동부'를 설치하게 된데서 지명이 시작되었다. '대동여지도'에서만 부의 행정명인 '안동'의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안동부의 방면지명은 동부면과 서부면을 비롯하여 동으로는 동선·동후, 남으로는 남선·남후, 서로는 서선·서후, 북으로는 북선·북후 등으로 구분된다. 모든 지도에 방면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비변사인영남지도'에는 특히 과거 속현이었다가 방면이 된 길안면·풍현면·소천면·재산면·춘양면 등을 상세하게 표기하였다. 동리지명으로는 유일하게 유성룡의 고향인 '하회'가 모든 지도에 수록되어 있다. 안동대도호부로서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부의 고지도에 나타난 읍치관련지명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읍치'라는 표현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안동부는 경북 북부지방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곳으로서 다른 군현에 비해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성터가 남아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고지도에는 성곽지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해동지도'의 구산성기는 읍성의 외성인 청량산성으로, '대동여지도'의 '책가'는 영남산 산성 주위에 박았던 목책으로 추정된다. 안동부에는 개목산·봉지산(남산)

·신석산·약산·소산·당복산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봉수는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들에 표현 및 표기되어 있다. 고을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설치된 검문소인 관곽과 고을의 방어에 유리한 '요충' 지명은 '해동지도'에만 표기되어 있다.

안동부의 경제지명은 창고지명과 제언지명으로 이루어진다. 안동부에는 읍창이 3개 있으며 과거 속현이었던 곳과 역원에도 창고를 두었다. '해동지도', '비변사인영남지도', 『여지도서』에는 구체적인 창고명을 제시하면서 지명을 많이 수록해 두었다. 관개용 저수지인 여자지를 『여지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동부는 읍치로부터 동로·서로·북로를 두어 이웃 군현과 안동부를 연결하였다. 동북쪽 산지에는 고개가 발달하여 군현지도집 지도인 '해동지도'와 '조선지도'에 고개지명이 다수 표기되어 있다. 물자를 이출입하거나 사람을 실어 나르던 도진으로서 포항진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견항진은 '대동여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동부에는 안기도가 설치되어 첩방이 속역을 다스렸다. 모든 지도에서 역원지명을 펴볼 수 있다.

유교 교화의 중심지답게 안동부의 고지도에는 사액서원인 호계서원·삼계서원·주계서원·병산서원·서간사를 비롯하여 많은 서원이 표시되어 있다. 안동부는 낙동강과 반변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양 강가에 풍경이 수려한 곳이 많고 유학자들의 거주지로서 다른 군현에 비해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영호루는 『여지도서』를 제외한 모든 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안동부 고지도에는 이전에 융성했던 불교문화와는 달리 적은 사찰명을 표기해 두었다. 화엄종찰인 광흥사와 봉정사를 '해동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서 사직단, 성황단, 여단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 공신세 태사를 모신 태사묘와 관우를 모신 관왕묘는 '해동지도'와 '비변사인영남지도'에서 지명을 살펴볼 수 있다.

안동부를 그린 고지도에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지명을 통하여 과거 안동부 지역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안동부 산지의 주맥인 태백산과 영양 일월산, 그리고 일월산의 지맥으로 하회마을의 안산인 원지산이 중요하게 다

루어졌다. 그리고 일반 행정이나 통치의 목적으로 지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든 지도들에 방면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유성룡의 고향인 하회동은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계거지로서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인 ‘하회마을’에 대한 강조는 당시 안동부 사람들의 택리와 풍수에 대한 사고를 엿보게 한다. 한양과 동래부를 잇는 봉수로의 간봉인 개목산·당복산·신석산·약산·감곡산·봉지산봉수와, 안기도와 창락도의 속역인 송제역·안교역·유동역·금소역·웅천역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 지리적 내용들이다. 이 지명들은 중앙과의 연계에서 지역의 안위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다는 점과 영남 내륙의 교통 중심으로서 안동부가 지녔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영남사람의 중심지였던 안동부에 많이 세워졌던 서원과 누정 중 호계서원과 영호루가 가장 비중 있게 표기되었다. 안동부의 곳곳에 분포한 서원과 누정은 과거 유교 교화의 중심에서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고 유교문화를 계승한 안동부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오늘날까지 깨끗한 선비의 정신으로 대변되어 안동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지리적 속성들이다.

안동부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들은 당시 안동부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리적 속성으로 간주되며 과거와의 연계선 상에서 현재 이 지역을 이해하고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지표로서도 가치를 가질 것이다. 안동부 고지도를 대상으로 하여 수록된 지명을 분석한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성을 이해하려는 지리학의 본질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었으며 과거 안동부의 지역성은 현재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공간적 실체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註

- 1) 『영가지』는 조선 선조 41년(1608)에 편찬된 경상도 안동부 읍지로서 8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안동지방을 대표하던 유림이 편찬에 참여한데다가 유성룡이 편찬요목을 지시하였고 또 읍지를 누차 찬술한 바 있던 정구의 기획 하에 완성되었으므로 어느 읍지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지방사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영가(永嘉)’는 두 줄기의 물이 합하여져 그 이름다음에 지극하다는 뜻으로 안동의 옛 지명이다.
- 2) 고을의 읍치는 홍색의 큰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에는 흑색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각 고을의 감영은 홍색의 정사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에는 성곽 모양을 표시하였다. 병영과 수영은 청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성곽이 있는 경우에는 청색 테두리의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 넣었다. 종6품의 관찰이 파견된 관찰역의 경우는 홍색의 작은 원으로 표시하여, 고을의 읍치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사시설인 진보는 청색 마름모 모양으로 통일하였으며, 창고는 건물모양으로, 봉수는 홍색의 불이 퍼져 있는 봉수 모양으로 표시하였다.
- 3) 『택지리』에 의하면 ‘산 모양은 반드시 수려한 돌로 된 봉우리라야 산이 수려하고 물도 또한 맑다. 또 반드시 강이나 바다가 서로 모이는 곳에 터를 잡아야 큰 힘이 있다. 이와 같은 곳이 나라 안에 네 곳이 있다. 개성의 오관산, 한양의 삼각산, 진잠의 계룡산, 문화의 구월산이다.....’(중략) 안동에 있는 학가산은 두 가닥 물 사이에 있고 산세도 오관산, 삼각산과 유사하나 돌봉우리가 적은 것이 유감이다.....!’.(중략).(이동신, 1994)
- 4) ‘하회는 하나의 평평한 언덕이 황강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여 있는데, 서애의 옛 고택이 있다. 황강물이 휘돌아 출렁이며, 마을 앞에 모여들어 깊어진다. 수북산은 학가산에서 갈라져 와서 강가에 둘러 있다. 모두 석벽이고 돌빛이 차별하면서 수려하여 험악한 모양이 전혀 없다. 그 위에 옥연정과 작은 암자가 바위사이에 점점이 잇달았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덮여 있어 참으로 절경이다’(복거총론 ‘산수’조). (최희만, 2003)
- 5) 안동읍성은 평지성 입에도 불구하고 산능성을 포함하는 곳까지 축성을 하였는데 이는 고대사회에서 도성을 축성할 때 평지성으로서의 도성과 이를 보완하는 외성으로서 산성을 축조하는 데 외성을 쌓지 못할 경우에 평지성이 산상으로 확대되어 축조되는 경우로서 안동읍성은 이러한 형태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동신, 1998)
- 6) 평지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도성 가운데서도 내성과 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벽이 산의 구릉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를 평산성이라 한다.
- 7) 향교가 나라의 제도나 규정에 너무 얽매어 있고 과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올바른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고 생각한 퇴계는 산 속이나 강가의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서원을 세워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퇴계는 서원이 향촌사회의 도학적 가치관과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오수경, 1996).
- 8) 정자(亭子)란 방이 없이 마루만 있는 작은 건물로 선비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시정(詩情)을 교환한다는지 사진(仕進)에서 물러나서 휴식하는 장소로서 건립된 것이다. 누각(樓閣)은 정자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樓·亭·堂·臺·軒·書堂

·精舍 등은 서로 구분 없이 누정으로 대변되는데 이는 명칭은 다르나 선비가 소요하면서 휴식하는 장소로서 또한 내객과 시가를 주고받고 하여 공통적으로 유희(遊興) 및 상경(賞景)의 동일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자녀의 교육과 인접자제들에게 강학도 하였을 것이고 또 씨족가리의 종회나 동리 주민의 모임의 장소로도 때로 사용되었을 것임으로 精舍·書堂·堂으로 명명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서주석, 1994).

## 文獻

姜吉夫, 1987, 國土와 地名, 도시문제, 22, 64-74.  
 國立地理院, 1985, 韓國地誌.  
 權斗奎, 1994, 高麗時代 安東都護府의 設置와 安東의 地名 定着, 안동문화연구, 8, 131-149.  
 權五軾, 1997, 映湖樓에 關한 小考, 안동문화연구, 11, 3-45.  
 權恩壽, 1986, 安東地方의 廢寺址에 關한 考察, 안동문화연구, 1, 9-41.  
 김기혁, 2002,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 분석, 韓國民族文化, 19·20, 333-375.  
 김기혁, 2002,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港都釜山, 18, 392-456.  
 金德鉉, 1991, 유교적 촌락경관의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191-214.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류일곤, 1983, 安東史蹟要覽.  
 민족문화연구소(경북대학교), 1991, 慶北鄉校誌.  
 박태화, 1999, 영남지방지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1-24.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2004, 부산·울산·경상남도 시군별 고지도 1.  
 뿌리깊은나무, 1983, 한국의 발견 / 한반도와 한국 사람-경상북도.  
 서울대학교규장각, 1995, 海東地圖(영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9, 朝鮮後期地方地圖(영인).  
 徐周錫, 1994, 安東의 樓亭, 안동문화연구, 8, 5-24.  
 안동문화연구소(안동대학교), 1988,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  
 안동문화연구소(안동대학교), 2000, 서원 :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安東府, 1991, 國譯永嘉誌.  
 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安東市史.

安東鄉校, 1992, 安東鄉校史.  
 양보경,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 93-122.  
 楊普景, 1995,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奎章閣, 海東地圖-解説·索引編, 60-74.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학교출판부.  
 吳壽京, 1996, 안동선비의 서원창설운동에 대하여, 大同漢文學, 8, 263-283.  
 오지현·김진균, 2000, 安東 臨淸閣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20, 601-604.  
 옥한석, 2003, 안동의 풍수경관, 대한지리학회지, 38, 70-86.  
 이경미, 1998, 지지 및 지도의 표현요소와 환경인식, 영남대학교박물관, 한국의 옛 지도(자료편), 128-136.  
 이동신, 1994, 한국산성의 특징과 안동의 산성, 안동문화연구, 8, 187-222.  
 이동신, 1996, 安東地域 山城의 新資料, 안동문화연구, 9, 91-133.  
 이동신, 1998, 안동지방산성의 특징, 安東史學, 3, 1-29.  
 이왕기·박명덕·김난기, 1988, 안동지방 제사건축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 147-156.  
 이중환(이익성 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李炯佑, 1987, 三國時代의 城郭과 地名, 民族文化論叢, 8, 57-80.  
 임채해·임세권, 1986, 안동문화의 재인식, 안동문화연구총서1, 안동문화연구회.  
 전용신, 1993, 韓國古地名事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조병로·김주홍, 2003, 한국의 봉수, 눈빛.  
 최희만, 2003, 영남지방 4대 전통취락의 지형적 입지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413-4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15.  
 한영우·안휘준·양보경, 1995, 고지도와 한국문화, 문화역사지리, 7, 39-63.  
 Helleland, B., 2000, Places-names(geographical

names) on and off the coast of Norway : 44, 62-71.  
names of oil fields compared to traditional  
place-names, *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접수 : 2004. 7. 1, 채택 : 2004. 8. 13)